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희망은 뭘까요?



IBK기업은행의 희망그리기

아이들의 희망이 무엇이든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이 희망을 키우고 평생토록 응원합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여성시대

양희은 · 서경석입니다

이달의 편지
엄마의 내복 사랑 외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방앗간 도전기

2015 November 11





주택청약·재테크·세테크를 통장 하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외국인 비거주자 제외) ※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 1인 1개까지만 가입가능

저축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날까지

적용이율	(2015.10.12 현재, 세전)				
	가입기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 이상
이율	무이자	연 1.2%	연 1.7%	연 2.2%	

-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 중도해지·만기후 이율 적용 없이 저축기간별 이율 적용
 - * 이율은 정부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납입 회차별로 변경후 이율 적용
 - 납입금액 :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적립 (단, 잔액이 1,500만원 도달시까지는 50만원초과 납입가능)
 - 소득공제 혜택 (세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 비교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세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 (주택별 요건 충족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영업점 및 고객센터(☎ 1566-2566)로 문의바랍니다.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1
방앗간 도전기



10 이달의 편지
엄마의 내복 사랑 외



68 행복을 찾는 사람들
(주)한맥전자 최경관 대표

76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2
먼 훗날 '아직도' 예쁜 머느리를 꿈꾸며

82 코너 속 편지
악몽의 전역파티 외

104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아이들의 TV시청시간

108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노래의 운명

110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19년 만에 도착한 답장

112 행복한 책 읽기
《시를 읽는 그대에게》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15년 11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광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이한재, 서미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59 **주소** (121-904)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최승미 **월간지(비매물)**

※ 본지는 한국도서관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위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마산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간월악) / 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방앗간 도전기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망월떡방앗간'의 안유진 씨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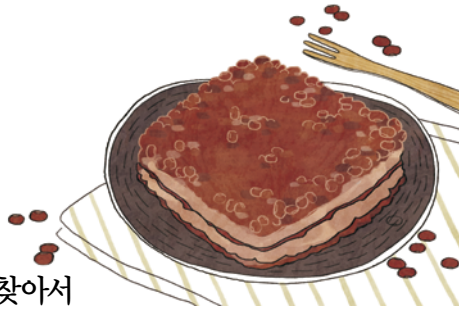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한적한 주택가 골목 안에 자리 잡은 '망월떡방앗간'의 아침은 분주하기 이를 데 없다. 한쪽에서는 팔시루떡이 하얀 김을 뿜어내며 쪄지고 있고, 다른 편은 기계에서는 붉디붉은 고춧가루가 곱게 빻아지고 있다. '탈탈탈탈'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뿌연 김 속에서 능숙하게 일을 하고 있는 여성시대 가족 안유진 씨가 방앗간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이제 몇 달되지 않은 초보지만 일하는 매무새는 몇 십 년 한 우물을 판 프로의 풍모가 느껴진다.

평소 떡을 좋아해 막연히 떡집을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돌연 떡방앗간을 시작하게 됐다. 마춤한 떡방앗간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덜컥 계약부터 해버렸다.

얼마 전까지 대형마트에서 유통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방앗간으로 전직을 해버린 거다. 방앗간을 해보겠다는 말에 놀란 건 가족들이었다. 평소 아내의 씩씩함을 알고 있던 남편도 “아니, 번갯불에 콩을 볶아도 유분수지...”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에서도 “방앗간 일이 힘을 많이 쓰는 고된 일인데 어떻게 하





려고?” 걱정을 했지만 단단한 허벅지 근육이 재산이라 생각하는 안유진 씨에게는 그리 큰일이 아니었다. 평소 테니스, 수영, 배구, 등산 등으로 다져진 체력이 방앗간 도전에 밑거름이 돼주었다.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의 곡식들이 요즘 망월떡방앗간을 차례차례 찾아오고 있다. 단연 첫손에 꼽히는 건 고춧가루 빵이다. 처음엔 멧모르고 반팔을 입고 고추를 빵았었는데 목덜미며 얼굴에 어느새 와서 달라붙은 고춧가루 때문에 온몸이 따끔따끔하고 온종일 재채기가 멈추지 않았다. 이제 노하우가 생겨 고추를 빵아달라는 손님이 오면 긴팔 옷으로 무장을 하고 가끔 마스크도 낀다. 그래도 스팀스멀 올라오는 재채기는 멈출 수가 없다.

“추석 전에 하루 고춧가루 400근을 빵았답니다. 바람에 날린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 데 머리에서 떨어지는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 쏟아낸 눈물이 한 동이쯤 될걸요.”

그래도 빵으면 빵을수록 색이 고와지는 고춧가루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고 시원하게 웃는다. 김장용 고추 한 근 빵아주고 받는 돈은 500원, 고추장용은 600원을 받는다. 대도시에서는 1,000원을 받는다는데 동네 장사이다 보니 더 많이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고추가 빵아지고 있는 사이, 잔뜩 김을 올리던 팔시루가 다 찌지고 먹음직스런 위용을 자랑하는 떡이 먹기 좋게 포장된다. 개업떡이란다. 떡을 찌며 그 집 장사가 잘되게 해달라는 기원도 함께 담는다.

하는 모양새는 프로를 닮아있지만 요 몇 달 사이 실수도 무던히 많았다. 가래떡을 뽑아달라는 주문에 물을 너무 많이 넣어 떡이 질게 되자 떡을 가져갔던 분이 전화를 해서 “아따, 떡이 너무 질어 못 먹겠네. 말렸다가 빵튀기나 해먹을라요” 하는 전화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전화기에 대고 사죄의 절을 연신 올려야했다. 그 손님 다음번에 오셔서 “요즘은 잘하는가?” 물으며 다시 떡을 해가셨다고 한다.

또 개업떡을 맞춰 가신 분이 전화를 해서 “아니, 속이 안 익었어요. 떡이 설었어요.” 또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다음에 다시 해드릴 테니 이번에는 시루에 한 번 더 찌서 드셔보세요” 했다.

지난 추석에는 밀려드는 송편 주문에 밤을 새워 떡을 만들었는데, 깨고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퍽퍽하기 이를 데 없이 되었다. 사 가신



분들이 다들 한마디씩 했지만 그래도 시골인심이 좋아, 초보니 그럴 수 있다고 다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신 덕분에 별문제 없이 지나갔다.

방앗간일 초보인 안유진 씨에게 스승이 한 분 계신데, 바로 방앗간 건물 주인인 올해 일흔여덟 살의 경연순 씨다. 오랫동안 방앗간 일을 해오신 할머니가 우연히 이 방앗간이 딸린 집을 사셨고, 그 자리에 생초보인 안유진 씨가 들어온 거다. 아침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할머니가 소리도 없이 슬그머니 내려오신다.

“응, 냄새를 맡아보니 이제 떡이 다 찌진 것 같네.”

“응, 이걸 찹쌀이니 물은 그만큼이면 되겠네.”

“응, 이 보리쌀은 덜 말랐으니 요만큼만 뿜으면 되겠네.”

냄새와 눈대중만으로 신기하게 알아맞히신다.

누가 보면 다정한 모녀 사이인 줄 안다. 할머니의 특별한 지도편 달로 안유진 씨의 실력이 날로 늘고 있다. 쌀자루도 번쩍번쩍 들고, 기계가 고장이 나면 손수 고치는데도 주저함이 없다. 일이 무섭지 않다.

전남 보성이 고향인 안유진 씨는 2남 4녀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동네 남자아이들과의 몸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16살, 남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에 방직공장에 들어갔다. 슬프거나 초라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연신 실이 뽑아져 나오는 곳에서, 아무 지게 어른 몫을 해냈다. 공장에 다니며 야간고등학교도 졸업했다. 배우는 것, 만지는 것 좋아 하는 성미라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걸 고치는 사람 옆에서 열심히 들여다보다 나중에는 손수 고치기도 했다. 일을 잘하니 언제나 여기저기 뽑혀 다녔다. 방직공장을 나와 택배일, 신문배달, 한복 만드는 일, 유통회사 관리직 등 하고 싶은 일은 덤석 덤벼들어 해왔다. 생각하면 바로 실천하는 게 본인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결혼도 만나지 3개월 만에 해버렸다. 매사 속전속결이다. 돌아보면 고단했을 삶이지만 그에게는 그저 신나고 재미있는 일로 기억에 새겨 넣었다. 딸 셋에게도 늘 “뒤편지 해봐라” 독려하는 엄마다.

정신없이 기계가 돌아가고, 남들 좋은 일에 쓰일 떡을 만들고, 가루를 뿜으며 신이 난다는 안유진 씨다.

“앞으로 한 10년은 방앗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 정비일을 배워 정비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실천한다’가 몸에 밴 안유진 씨의 도전은 쭉 이어질 것이다.





여성시대가 시작되는 아침 9시 5분이면 문자로 미니로 여성시대 가족이 계신 곳의 풍경을 속속 보내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며 듣고 계신 분,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시는 분, 납품할 물건을 신고 거래처로 향하시는 분, 밖에서 일을 하며 들으시는 분 등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일터의 소식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각 지역의 날씨를 생생하게 전달해주시고, 찬란한 아침 햇살과 싱싱한 발작물을 사진에 담아 전송해주시지요.

그걸 보며 저희 제작진은 앉아서 전국의 소식을 꼼꼼히 챙겨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다른 장소에 있지만 여성시대를 함께 들으며 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사진을 제작진만 보기가 너무도 아까워 이번 달부터는 <여성시대 사진방>이라는 지면을 통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시대 가족들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감이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피부로 느끼는 오감에 '직감'이라는 것까지 합쳐 '육감'이 됩니다. 여성시대 애청자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여성시대 사연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 듣는다는 겁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해 매일 아침 9시 5분이면 여성시대를 함께하는 여성시대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지면을 통해 전합니다.

행복한 11월 되세요.

이달의

편지

- 12 엄마의 내복 사랑
- 17 사랑의 편지
- 21 가지를 말리며
- 24 극한직업, 교도관의 24시간
- 29 아들의 실직 소식
- 33 형의 친구와 친구가 되다
- 38 서경석 씨, 저 기억나세요?
- 42 시각장애 아빠를 돌보는 아이
- 47 어느 날 그림을 시작하다
- 51 베트남 부부와 맺은 특별한 인연
- 55 인력시장 이야기
- 59 아들이랑 떠난 서유럽 여행

일러스트 | 이경선
chungpo@naver.com





날씨가 추워지니 따뜻한 국물과 보들보들한 촉감의 내복이 먼저 떠오르네요.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애들이 잘 때 이불을 잘 덮고 자지 않아 감기에 걸릴까 싶어 며칠 전에는 내복을 꺼내 입혀 재우려는데 언제 컸는지 내복이 맞질 않네요. 팔목과 발목이 모두 경충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내일은 꼭 애들 내복을 사다줘야지' 마음먹고 내복 투정을 부리다 곱게 잠든 아이들을 지켜보니 친정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친정 엄마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내복을 즐겨 입으셨습니다. 엄마의 내복 사랑은 9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9월이 되면 아주 얇은 7부 정도의 내복을 입고 농사일을 하셨는데 저는 가끔씩 걸웃 위로 빠져나오는 낡고 촌스러운 엄마의 내복이 창피해서



“엄마, 아직도 더운데 무슨 내복을 벌써 입고 그래. 그리고 입으려면 좀 제대로 된 것 좀 입고 다니던지. 맨날 여기저기 구멍 난 것만 입지 좀 말고” 하면, 엄마는 “속에다 입는 것인데 뭐가 어떻다고 이야단을 하나. 걱정마라. 너한테 입으라고 안할 거고 내복 사달라고 안할 테니깐” 하며 아무렇지도 않아 하셨지요.

그런 엄마의 내복 사랑 덕에 우리 4남매는 취업하고 첫 월급을 타면 당연히 엄마께 내복 선물을 해드렸고, 엄마의 생신이나 명절에 선물로 내복을 사다 드리면 좋아하셨습니다. 큰맘 먹고 내복보다 훨씬 비싼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걸 사다 드리면 “이런 걸 뭣 하러 사왔냐. 다시 가서 돈으로 달라고 해라. 엄마에게 이런 건 필요도 없는 것인데” 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서, 내복을 사다 드리면 “이건 곱기도 하다. 올 겨울은 따뜻하겠다. 요새 내복은 참 예쁘게도 나왔다. 참 곱다” 손으로 내복을 쓸어가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엄마께서 수년 전, 가슴 쪽에 작은 혹이 생겨 간단한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수술까지 하게 된 터라 병원에서 쓸 엄마의 물건들을 챙기러 친정에 가는데, 엄마께서 저를 부르더니 “다른 건 몰라도 내복이나 두어 벌 챙겨 와라. 병원인데도 엄마는 좀 썰렁하다”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친정에 가서 세면도구와 수건, 그리고 옷장을 열어 속옷과 엄마가 부탁하신 내복을 챙기려는데 제 눈에는 어찌 죄다 낡은 내복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언니와 동생들이 사다 드린 내복이 있을 텐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봐오던 한 번만 더 입으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낡은 내복밖에 없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엄마는 새 내복은 어디다 두고 죄다 이런 내복만 입는 거야’ 투덜거리면서 여기

저기 뒤지다 보니 옷장 맨 위 칸에 보자기가 씌어져 있는 물건이 있어서 내려서 보자기를 벗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장도 그대로인 내복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십 개의 내복 상자들을 보니 화도 나고, 이걸 입지도 않고 매번 낡은 내복만 입고 지내시는 알뜰한 엄마 생각에 눈물도 났습니다. 내복 사다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왜 입지도 않고 이렇게 모셔둔 건지, 아꼈 줄만 아는 엄마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의 낡은 내복을 모두 버리고 보물상자 모시듯이 모셔놓은 엄마의 새 내복을 몇 벌 챙겨서 병원에 가지고 갔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더니 “이 내복은 왜 가져온 거니? 이걸 막내가 취업해서 탄 월급으로 사온 거라 엄마가 안 입은 건데. 그리고 이걸, 느그 형부가 승진해서 사다 준 내복이라 엄마가 기념으로 두려고 안 입은 거고. 그리고 이걸...”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시더군요.

엄마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럼 엄마가 집에 가서 가지고 와. 엄마는 그걸 내복이라고 입고 다닌 거야? 내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십 벌 있으면서 왜 낡은 것만 입고 그래” 화를 냈더니, 엄마는 그래도 새 내복을 입는 것이 아까우신지 “그게, 뭐든지 원래 내 몸에 익으면 편하잖아. 그래서 입는 거지. 세상에 죄다 좋은 것만 가지고 왔네. 병원에 있는데 뭐 한다고 좋은 내복을 입으라고 가져온 거야. 엄마는 입던 내복이 편한데. 안 그래도 한두 번만 더 입고 새 내복 꺼내서 입으려고 했어...” 제 눈치를 살살 보시면서 얼버무리시더군요.

저는 “엄마가 입던 현 내복 다 버렸어. 세상에, 내복이 그렇게 되도록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주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던데. 어떻게 그런 걸 입고 다니고 그래. 예쁘고 좋은 내복이 없는 것도 아닌

데, 뭘 그렇게 아끼고 그래. 이제 퇴원하면 내가 꺼내준 내복 다 입어. 옷장에 모셔둔 내복들 다 꺼내 입으란 말이야”라면서 펑펑 울자, 병실에 있던 분들이 모두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요. 딸이 속상한가 보네. 엄마 아파서 병원에 온 것도 속상할 텐데, 그깟 내복이 얼마나 간다고 다 찢어진 낡은 내복을 입어서 딸 마음 아프게 해요. 아끼는 것도 좋은데 자식들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아끼진 말아요.”

그분들이 거들자 엄마는 그제야 “애가 오늘 왜 이런다니. 알았어. 집에 가면 네가 하라는 대로 새 내복 다 꺼내서 입을게. 그래도 엄마가 입던 내복 중에 유난이 따뜻한 게 있었는데 그건 아직 버리기 아까운데...” 여전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혹 제거 수술을 하고 며칠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한 엄마가 제일 먼저하신 일은 서랍장을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엄마가 입던 낡은 내복을 버렸다는 것을 아시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랍장을 열어 보고는 “정말 다 버렸네. 아고 아까워라” 중얼거리면서 새 내복을 몇 벌 더 꺼내서 입으셔야 했던 거지요.

우리 엄마의 내복 사랑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시지요. 한번 내복을 꺼내면 마르고 닳도록 입으셔야 하고, 새로 사다 드리는 내복은 늘 옷장 맨 위 칸에서 보물 대접을 받는 중이지요.

그리고 보니 엄마께도 내복 한 벌 사다 드려야겠네요. 분명 예쁘다, 따뜻하겠다고 칭찬 일색을 늘어놓고는 옷장으로 직행을 할 테지만요. 조만간 예쁜 내복 한 벌 사 들고 친정에 가서 엄마의 오래된 내복들 재고정리 한 번 하면서 고이 모셔둔 새 내복들을 다시 꺼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들도 다 커서 집안일도 줄고 해서 할 일을 알아보다가 한 빌딩의 사무실 한 층을 맡아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콧노래도 불러가며 재미있게 일했습니다.

일을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 어느새 5년이 되었고, 제가 일하는 층의 사무실이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몇 달 뒤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사장님과 사무실 직원들과 정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맡은 일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 이사 가기 전날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아가씨가 “이모, 회의실을 어질러 놓았어요, 좀 와주세요” 하더군요. 저는 청소해 달라는 줄 알고 청소도구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다. 그러자 사무실 아가씨가 “이모, 그냥 가요” 해서 따라갔습니다.

아가씨와 함께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사무실 직원들이 다 모여서 갑자기 박수를 치고, 케이크, 꽃다발, 사랑의 편지글과 선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5년 넘게 정든 회사가 이사 간다고 해서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회사에서 저에게 특별한 인사와 격려의 이벤트를 해준 것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내 방에 와서도 감사한 마음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청소아줌마인 저한테까지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도 사무실 직원들이 준 사랑의 편지를 매일 매일 읽으며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볼 때마다 힘이 절로 납니다. 즐겁게 일하다보니, 미화원인 저에게도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고 회사는 아침밥을 못 먹고 온 직원이 먹고 일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회사 안에 있고,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을 좋게 해주는 것 같아 옆에서 보기에 좋아 보였어요. 사장님이 직원들의 건강과 마음을 챙겨주는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요즘도 사무실 직원 분들이 오며 가며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종종 생각납니다. 사장님과 사무실 직원 여러분, 힘내시고 나날이 번창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저에게 준 편지입니다.

- 아주머니, 늘 저 걱정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리울 거예요. 건강하시고, 나중에 기회되면 놀러올게요.

- 사랑하는 우리 아주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휴지통 깨끗하게 쓰는 아무개 드림)

- 밝은 미소로 맞이하시는 아주머니. 제일 먼저 출근하셔서 구석 구석 깨끗하게 정리해주셔서 아침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 식구라고 생각하며 동고동락했는데, 이렇게 이별해야 한다니 서운합니다. 그동안 안 보이는 곳에서 알뜰살뜰 따뜻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6층 어머니이자 우리 회사의 우렁각시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덕분에 항상 쾌적한 회사에서 생활하다가 갑니다.

- 아주머니, 우리 식구들이라고 말씀해주실 때마다 뭉클했어요.

- 아마 제 자리가 제일 지저분했을 거예요, 정들었는데 아쉬워요.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존경합니다.

- 아주머니, 지나갈 때마다 항상 먼저 웃어주시고 인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늘 쌓이는 종이에, 막히는 화장실, 주말 지나면 냄새 나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청결하게 해주신 덕분에 편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우리 빌딩에서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아주머니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 빌딩의 미소 천사세요.



Letter 3

가지를 말리며



김명신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지 금 옥상에는 십자로 칼집을 낸 가지가 빨랫줄에 널려 있어요. 며칠째 하늘이 흐려서 혹시나 비라도 올까봐 톱툰이 밖을 내다보며 옥상에 수시로 드나들곤 합니다.

하루는 잠자리 한 마리가 가지꼭지에 앉아 있는 게 하도 예뻐서 휴대폰으로 찰칵찰칵 사진을 서너 장 찍어봤어요. 요 녀석이 처음엔 날아가는 듯하더니 바로 옆 가지로 이동해 망사 같은 날개를 바람결 따라 너울거립니다. 그 날갯짓을 오래도록 보고파 동영상으로 찍으니 녀석은 촬영을 마쳤다는 듯 훌쩍 날아가 버리네요.

오늘은 다행히 별도 좋고 공기도 깨끗해서 가지를 말리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가지 150개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걸 보고 있자니 가지를 보고 기뻐할 언



니가 떠오릅니다.

올해 12월 중순이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언니가 형부와 함께 보름간의 일정으로 엄마를 뵈러 올 예정이에요. 언니네는 캐나다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정말로 똑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식당에 오셨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뛰고, 눈물이 핑 돌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십여 년이 지났으니 언니를 찾아 올 리 없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한국에 가면 아버지를 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저 멀어서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듯합니다. 그러니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오셨다는 착각이 인거고... 그날은 그리움에 사무쳐 종일 울었다지요.

더군다나 이제 연로하신 엄마도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

뵈어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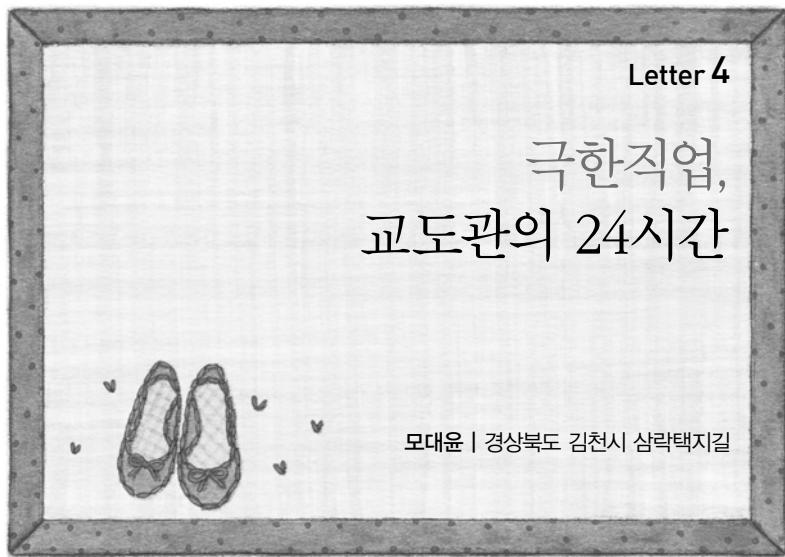
엄마는 벌써부터 큰딸이 좋아하는 오이지와 옥수수를 냉동고에 잔뜩 얼려두고 앞으로 달랑무 김치만 때 맞춰 담그면 된다고 하시네요.

지금 옥상에서 말리는 가지는 언니가 출국할 때 가져갈 건데 엄마가 베란다에서 말릴 거라고 하시기에 제가 별 좋은 옥상에서 하겠다고 자청해서 가지의 자리를 만들었지요. 저는 가지를 특별히 좋아하는 않지만 언니가 말린 가지가 먹고 싶어 한국 와서 아주 많이 사가겠다는 말을 듣자 역시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 가지는 퐁퐁하기만 했지 깊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전에 한인신문에 사회복지사가 올린 글이 문득 떠오르네요. 미국 양로원에 계신 한국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 후에는 항상 송늬를 달라고 하셨대요. 밥을 먹고 나면 으레 입가심으로 먹었던 송늬의 맛을 수십 년간 잊고 산 분이, 아니 먹고 싶어도 참으며 산 그분이 기억도 희미해진 그때, 송늬를 찾는 것을 보니 그동안 드시고 싶은 것도 말하지 못하고 참고 사셨을 할아버지가 측은해서 마음이 아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치매에 걸렸어도 몸속에 흐르고 있는 한국인의 입맛은 애써 기억해내려 하지 않아도 잊히지 않고 더 갈망하게 되는가 봅니다.

엄마는 앞으로 한 달여 언니를 더 기다려야 하지만 지금 설레는 이 마음이 좋다고 하시네요.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겠지요. 왔다가 가버리면 희망이 없어지니 벌써부터 섭섭해진다구요.

이제 서향 빛이 길게 주방까지 드리워지는 걸 보니 가지를 거둬야 할 것 같네요. 우리 귀하신 몸, 가지 거두러 옥상에 올라가야겠네요.



오 전 6시 30분, 요란한 휴대폰 알람소리에 잠을 깬다. 반쯤 눈을 감은 채 화장실로 가 세수를 시작한다. 입이 찢어질 정도로 하품을 하고 나니 아직도 곤히 자고 있는 아내와 6살 딸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휴여 잠에서 깰까봐 조심조심 물을 끓이고 간단하게 밥에 물을 말아 김치랑 먹는다. 오늘 하루도 버텨야 하니 억지로 밥을 꾸역꾸역 먹는다. 주섬주섬 재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선 시각은 7시. 남들은 외곽에서 시내로 출근하지만 나는 정반대 방향이다.

7시 30분께 직장인 소년교도소에 들어섰다. 소년교도소는 교도소 중에서도 만 20세 미만의 소년범 중에서 비교적 죄질이 중한 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그렇다고 소년범만 있는 건 아니다. 성년이 되어도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3세까지 수용할 수 있다. 대부분

중범죄자들인 소년수들을 관리하다 보니 직원들도 업무 긴장감으로 피로도가 높다.

출근 즉시 사무실에 들어와 배치표를 확인하고 열쇠며 무전기며 이것저것을 챙기고 점검을 마치고 정문에 들어서니 7시 40분.

이제 정문을 들어서면 사실상의 징역살이가 시작된다. 근무지 내에서 휴대전화는 물론 흡연, 독서까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한 것처럼 옷 벗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 근무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 500명가량 되는 '수용자라고 부르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데만 전념해야 한다.

이들 중 내가 맡은 사동은 미지정 사동으로 말 그대로 취업을 기다리는 소수의 수용자와 집단생활이 부적합하거나 폭행의 우려가 있어 취업에 적합하지 않은 대부분 재소자를 수용하는 사동이다.

미지정 사동으로 들어가니 전날 야간 근무했던 근무자가 나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눈에 띄게 초췌한 모습을 한 그 눈빛을 보니 전날 밤 대충 어떤 분위기였다는 걸 한눈에 알아차리기 충분했다. 아마 지난밤에 일당백 하는 몇몇 수용자로 인해 꽤 피곤했나 보다. 그리고 그 근무자는 '무사히 근무가 끝났구나' 하는 표정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

현황판을 보니 60여 명이다. 어제보다 5명이 늘었다. 보아하니 규율위반으로 징벌이 끝나고 공장 취업보다는 여기서 당분간 지낼 모양새다. 방에서 싸우거나 흡사나 자해 또는 자살을 하지는 않을까, 당분간 긴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192번은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으니 의무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고, 노역수인 65번은 잔뜩 골이 나 있으니 꼬투리 잡히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소년수인 243번과 135번은 사이가 안 좋으니 분리해서

운동시켜야 한다는 인수인계를 받았다.

오전 8시 00분. 인원 파악과 환자가 없는지 등을 체크하는 인수점검이 끝나고 본격적인 주간 근무가 시작됐다.

192번은 즉시 의료과로 보냈다. 65번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노역수로 수용된 자이다. 전과만 16범에 수용 경력도 참 화려하다. 아직도 잔뜩 골이 나 있는 65번은 근무자를 부르고 또 부른다. 주제를 벗어난 얘기까지 하며 이제는 시비까지 건다. 너랑은 얘기가 안 통하니 소장 면담을 시켜 달란다.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불이익이 간다고 경고했더니 잠잠하다. 그러곤 A4 용지로 뭔가 열심히 쓰고 있다. 자세히 보니 인권위 진정서와 고소장이다. 직무유기라는 부제와 함께….

243번과 135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웃고 있다. 그래도 워낙 돌발행동이 몸에 밴 소년수라 원칙대로 분리 운동을 시켰다.

여기서 소년 수용자의 특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폭행 같은 돌발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어렵게 뉘우치고 쉽게 잊는다는 것. 그래서 직원들은 성인수 10명을 상대하는 것보다 소년수 1명을 훈육하고 교정교화 하는 일이 몇 배로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소년수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다. 근무지 내에서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30분에 1회 이상 시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냥 훑어보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짧은 시간에 그들의 표정과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야 한다.

오전 11시 30분. 휴식시간 차례가 돌아왔다. 가는 길에 65번이 쓴 고소장과 진정서를 가지고 사무실에 제출하고 서명도 해야 한다. 걸어서 10분 거리인 식당까지 달려가야만 5분 안에 도착하지만 사무

실을 들러야 해서 추가로 5분이 걸렸다. 점심식사를 10분 안에 다 먹고 다시 뛰어가 5분 안에 양치며 세면을 해야 한다.

그렇게 달려간 미지정 사동. 정문을 열자마자 소화가 안 되는지 갑자기 속이 메스거린다. 이른 점심을 ‘폭풍흡입’ 하고 나니 아랫배가 살살 신호를 보낸다. 아쉽지만 용변은 2시간 후 교대가 올 때까지 참아야 한다. 사동 안으로 들어가니 수용자들의 점심식사가 시작되고 있다.

식사시간이라고 근무자는 긴장을 풀 순 없다. 배식을 놓고 수용자들끼리 적지 않은 신경전이 있을지 모르고 그 중 몇몇은 시골벽적인 틈을 타 무슨 일을 벌일 지도 모른다. 게다가 65번은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투덜대고 있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소송전문’으로 꼽힌다. 오늘 아침처럼 그에게 걸리면 한동안 법원과 검찰을 들락거려야 한다.

얼마 전 동료 J는 소리를 지르는 193번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오히려 ‘폭력’ 가해자로 고소당해 검찰조사를 받았다. 혐의 없음으로 판명되었지만 그때의 스트레스로 J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

꼬투리를 잡지 못한 193번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달 그는 교도소장 판공비 내역과 지난 해 OO교도소에서 생산한 문서의 종류와 총 건수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한 것이다. 결국 교도소 측은 A4용지 2상자 분량으로 자료를 요약해 넘겨줘야 했다. 교도관 4명이 꼬박 일주일 그 일에 매달렸다. 혼쫓이 난 관계직원들은 그를 피하게 됐고, 그는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영웅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욱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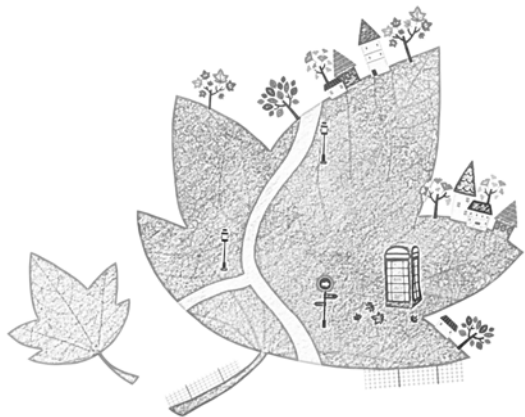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휴식시간. 나도 어느새 파김치가 됐다. 이제 다시 사동 안으로 들어가면 야근자들이 올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야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수용자들의 저녁식사가 시작될 무렵이면 퇴근할 수 있다.

저녁 6시. 퇴근하면서 출근 때 반납한 휴대전화를 돌려받는다. 전화를 켜보니 12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다. 근무 중에 전화를 못 받는다는 것을 아는 가족들의 전화는 아니다. 대부분 스팸 아니면 대출문자, 택배문자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긴 지 오래다. 몇 번 전화를 받지 못하자 어느새 멀어져 버린 것이다.

다음날은 야간 근무다. 야간 근무가 힘든 것은 취침 때까지 수용자를 감시하고 취침 이후 30분에 1회 이상, 길이 100미터 되는 2층 건물 3개 사동을 시찰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책도 볼 수 없다. 비록 잠든 수용자들 이지만 그들에 대한 만전을 기하며 밤을 새워야 한다. 하루 정도는 편할 것 같지만 이 일을 10년, 20년 해야 하니 엄청난 고역이다.

16시간의 야간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을 한다. 또 하루가 별일 없이 지났다는 안도감을 안고 집으로 향한다.



Letter 5

아들의 실직 소식



유재임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을 평신로

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여태는 그냥저냥 그러려니, 내일은 나아지겠거니, 그런 막연한 긍정의 힘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쉰여섯, 남편 나이 예순이 되고 보니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건 왜일까요?

며칠 전 아들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잠시 내려가서 뵙고 드릴 말씀 있어요.” 순간 느낌이란 게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얼른 “그래 언제 올 거니? 기다릴게”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두 근 반 세 근 반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온갖 추리력이 발동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들이 왔습니다. 우선 시내에서 만나 저녁만 먹고 돌아가겠다는 아들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따끈하게 밥해 줄

테니 집에 가서 아빠 퇴근하시면 같이 이야기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들이 실직을 했다네요. 두어 달 전에 했는데 숨겨서만은 해결될 일이 아닌지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다고, 지금 취직자리 찾아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으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이 결혼한 지 불과 일 년도 안 되었거든요. 얼마 전에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 이제 아기 계획 세워보려고요” 그랬었지요. 무기 계약직이라 급여 수준이 정규직만 못해도 큰 걱정 없이 직장생활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입사 2년 되는 재계약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자르고 다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군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어쨌건 일은 벌어졌고, 순간 착하고 예쁜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한없이 미안해지고 어떻게 잘 다독여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명랑하게 하여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배웅을 하고 돌아서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찌하나?’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남편은 내년엔 정년퇴직인데 그동안 재테크를 한다고 한 것이 잘 못되어 우리 노후도 걱정이 태산인 상태거든요. 청년층 실업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나라에서도 여러 정책을 실행한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취직을 한다는 게 힘든 일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무기 계약직이라 좋아라 하던 아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덜컥 결혼을 시켜 달라기에 사권 지도 오래되어서 승낙했는데 아들에게 가정이 있다는 게 이럴 때는 부모로서 더 걱정거리



가 되네요.

아들 문제가 아니어도 지금 제 어깨는 천근만근입니다. 엇그제 홀로 계신 아버님을 뵙고 왔는데 제 인생이 더욱 꼬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올해 거금을 들여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자꾸 여기저기가 아프다며 조금만 불편해도 병원에 입원부터 하겠다고 하십니다. 다달이 용돈도 드리는데,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에게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으시고 연세가 들어가며 점점 고집만 늘어 가십니다. 평생 돈 한 푼 벌지 않으셔서 그런지 용돈 드린 걸로 멀쩡한 소파를 바꿔놓고 올해 새로 산 침대를 산산히 해체해서 이곳저곳에 놓아두셨더군요. 주말에 허리가 안 좋다며 지금 응급실에 가면 치료를 해주는 데 왜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느냐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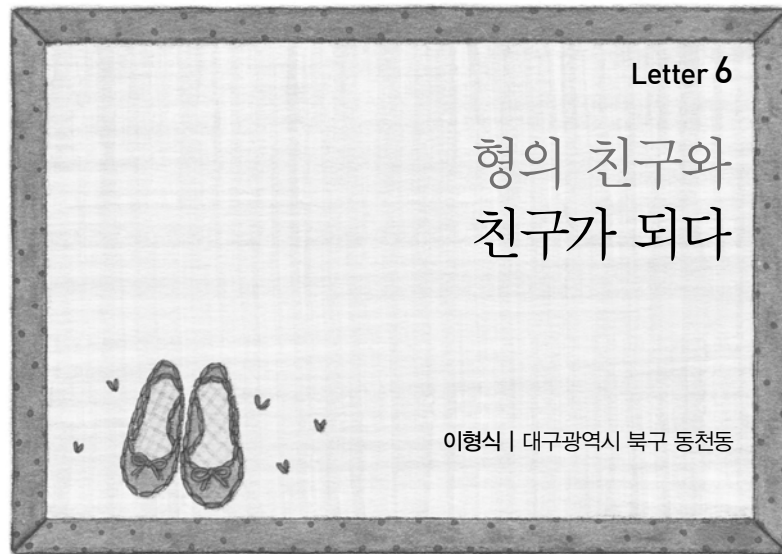
역정을 내셨습니다.

뒤돌아보니 참 힘들게도 살았네요. 칠남매의 장남인 남편에게 시집와서 집안 대소사 챙기는 일은 다 우리 몫이었습니다. 시누이 다섯 시집보낼 때도 다 저희가 번 돈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지 않은 거금이 들어가는 일이 하도 많아 부부싸움도 간혹 했습니다. 동생 여섯 중 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시누이, 시동생 등록금 낼 때마다 빚이 늘어났고, 오랜 세월 그 돈도 우리가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등학교만 나와 사회생활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근근이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유롭게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남편도 내년이 환갑인데 팔순이 넘은 아버님의 꾸지람에 어깨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아들이 실직을 했다고 하니, 이 가을이 더 쓸쓸하고 아프게 다가오네요.

누구나 다들 어려운 시간들이 있겠지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만, 좀 더 젊었을 때는 그런 믿음이 제 마음을 꼭 채워주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다보니 웬지 그런 믿음도 조금은 불안합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봅니다.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들 실직에, 철없으신 시아버님, 선 언저리의 결혼 안한 시동생, 생각만 해도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내년이 정년인 제 남편 어깨는 저보다 더 무겁겠지요? 참 좋은 사람인데 저라도 힘내서 토닥여줘야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도 좀 있으면 아들 실직도 좀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라도 조금이나마 아들 가정에 도움을 줘야 머느리가 그나마 숨통이 튀일 텐데 어찌야 할까요? 그저 알팍한 통장만 바라봅니다. 저에게도 웃을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지요?



9년 전의 일이다. 친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법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세금을 얼마나 더 냈다, 마누라 명품가방을 사주었다는 등 자랑을 해대니 나도 '이참에 장사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한동안 마음이 붕 뜬 시기였었다. 아내는 속편하게 월급 받고 살자며 내 의견에 반대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 나는 그냥 집을 확 빠져 나와 버렸다. '어떤 일을 하면 이놈의 붕급쟁이보다 더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 문득 눈에 띄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어 그곳으로 들어가 보았다.

“저... 가게 한 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네! 어서...”

그런데 상담을 하려고 나를 반기던 그 공인중개사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흠칫 놀라는 것이다.

“아휴, 뭘 그리 놀라십니까? 제 인상이 좀 험악한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앉으시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얘기는 듣는 등 마는 등 계속 일이 빠진 사람 처럼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급기야 내 말을 막고 급하게 질문을 했다.

“혹시, 형 있지 않나요? 아니, 있지 않았었나요?”

1988년 이맘때, 그때까지 나는 형이 있었다. 나보다 아홉 살 많은 형.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부터 시작해서 ‘너 이번에 몇 등 했냐? 너, 공부 이렇게 안하면 형한테 맞는다’ 등등 아버지보다 더 무섭고 깐깐했던 우리 형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취직한 후 고향에 내려와 친구들과 첫 휴가를 즐기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맞구나 맞아! 그 친구 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었지. 집에서 이렇게 부르죠? 이름 끝 자만! 식아~, 이렇게요. 닭았네, 닭았어. 난 단번에 그 친구 얼굴이 떠올라 아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갑자기 울먹거리는데 나는 물론이고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까지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보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농사짓는 집 안에서 대학생 등록금은 둘째 치고 당장 자취방을 마련해주기도 쉽지 않았던 시절에 형은 어렵게 공부를 했었다. 일당 육만 원을 받고 막노동을 했던 우리 형은 농사일로 단련된 체력이라 일주일이나 버티었지만 옆방에 있던 다른 자취생은 하루만 하고는 그냥 뺏어버렸다고 했다. 그때 우리 형은 라면을 두 개만 끓여 혼자 먹을까 하다가



한 개를 더 넣고는 옆방에 노크를 했다.

“저... 허리 많이 아파요? 같이 라면 먹을래요?”

이것을 인연으로 우리 형과 그 형은 다음 학기에 한 방에서 같이 자취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줄이게 되었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늘 라면을 끓여 같이 먹었다고 했다.

“참, 그때 먹은 라면을 씹으면 집도 지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 친구, 라면 참 좋아했지. 집에 가서도 라면만 먹고 왔더며?”

“예, 엄마 아버지 두 분 다 들에 일 나가시면 제가 라면 끓여 주곤 했는데...”

“맞다, 맞다. 우리는 세상에서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그랬었지.”

이렇게 만난 우리 형의 친구는 그날 내게 마누라 말 듣고 사업 생각은 접으라고 조언해주었다. IMF 때 직장을 잃고 도전한 공인중개사 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상가를 알아봐주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며 잘된 친구들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전부다 아님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그동안 나는 직장을 두 번이나 옮겨야 했고, 그때마다 형이 내게 참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운 좋게 싸게 나온 집을 구해주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내 집도 장만할 수 있었고, 창업이다 프랜차이즈다 주위에서 내게 바람을 넣을 때도 이 형은 내 곁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었다.

차를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형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나는 요즘도 아내와 말싸움을 하다 좀 코너로 몰린다 싶으면 형의 사무실로 그냥 가버린다.

여자들이 남편과 싸우고 나면 친정으로 가버리거나 친구들과 수다한판 벌이는 것처럼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뒤로 나는 이 형이 있는

곳이 여자들의 친정집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런데 너무 우스운 사실은 가끔 형이 내게 문자나 전화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

“식아, 우리 사무실에서 라면 먹고 갈래?”

형이 형수님이랑 싸우고 나서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을 때면 꼭 라면을 미끼로 나를 부르는 것이다.

“식아, 무슨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나봐. ‘라면 먹고 갈래?’ 사실은 이 말, 네 형이 원조야. 나한테 라면 같이 먹자 그래서 우리가 친구 사이가 된 거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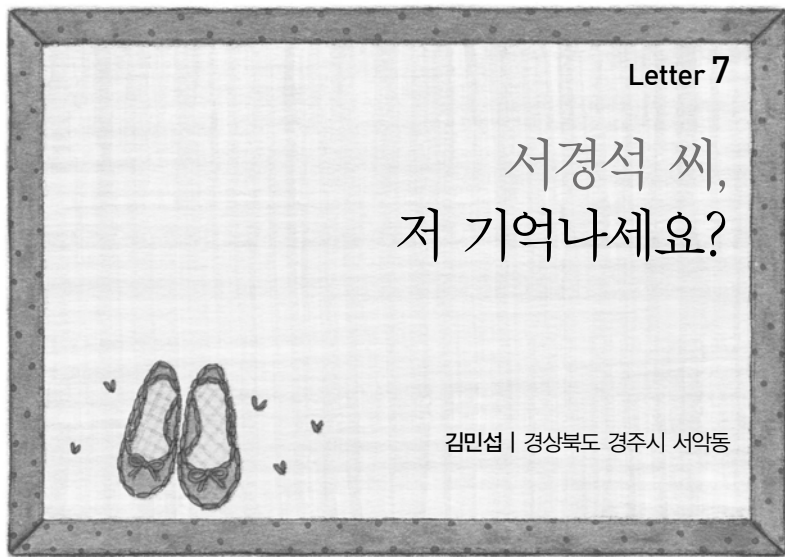
그 시절에는 라면에 공깃밥 한 그릇이면 더 바랄 게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계란도 넣고, 어묵, 치즈, 햄 등도 넣어 보고, 많이 여유로워졌다.

“형님, 우리 이제 업그레이드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유? 한 단계 높여서 짬뽕 어때요?”

“시끄러워 인마! 넌 아직도 멀었어. 걸뭇만 들어가지고, 젊을 때 더 벌어.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친구들 그만 부러워해라.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아! 으이구 이 자식, 네 형이 너 걱정돼서 나한테 보내주었는가 보다.”

우리 형은 라면으로 친구를 사귀었고, 그 친구는 나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제 나는 새로운 형님이랑 오붓하게 라면을 나누어 먹으며 세상 이야기를 나눈다.

이 자리에 우리 형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상상하지만 내게 늘 버팀목이 되어주는 누군가를 단 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두고 있다는 안도감과 든든함에 내가 먹는 이 라면이 세상의 그 어느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여 성시대 애청자입니다. 출근할 때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여성시대랑 친해졌어요. 얼마 전부터 남자 진행자 목소리가 달라졌는데 그분이 서경석 씨란 사실을 알고 나면서부터 좀 더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답을 찾아보니, 저 깊은 기억 속에 있던 옛 이야기가 생각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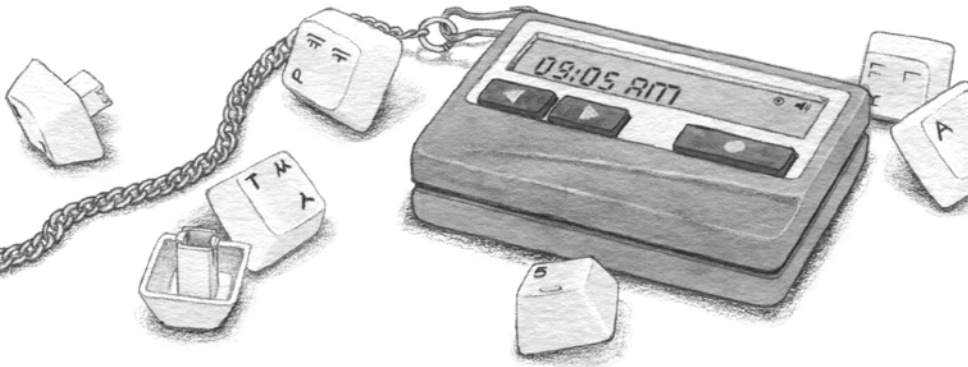
때는 1996년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막 시작된 6월 말이었죠. 그때 지금처럼 휴대폰은 물론이고 인터넷도 거의 없었던 시절로 인터넷의 전신이라고 하는 PC통신이란 게 있었습니다. 전 하이텔 PC 통신을 이용했고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건 전혀 없는 오로지 글자로만 이뤄진 녹색 화면에 게시판, 동호회, 엄청 작은 용량의 게임, 그리고 채팅, 이 정도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지금은 채팅을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시절 채팅을 한다고 하면 컴퓨터라는 신문에 익숙하고 차세대 이용거리를 활용하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교양인으로 인정받았더랬죠.

저는 그때 하이텔 채팅방을 종종 이용했는데 방이 총 100개가 있었고, 한 방에 12명이 정원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인원은 1,000명 정도가 한계였는데 항상 정원이 꽉꽉 차서 ‘복잡하고 시끄러운 공간’이란 이미지가 강했답니다. 그래도 얼굴 모르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재미는 생각보다 꽤 좋았지요.

그날도 전, 잘 모르는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진 않지만 제법 친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한참 얘길 하던 중, 또 다른 사람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 사람 아이디 옆에 있는 이름이 바로 ‘서경석’이었습니다. 그때도 서경석 씨는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었어요. 서울대 출신의 개그맨,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그 사람이 서경석 씨 팬이거나, 아님 별 생각 없이 서경석 씨를 사칭하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본인이 진짜 서경석이라고, 서경석이 맞다고 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채팅방 사람들 반응은 ‘웬 시답잖은 사람?’ 정도였고요, 그 사람도 요즘처럼 자기가 서경석이란 걸 인증해 보인다는가 그런 것 없이 그냥 ‘나 서경석’이라고만 하니깐 더더욱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19년 전, 그때 제가 순진해서였을까요? 전 그 사람이 ‘진짜 서경석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진짜이든 가짜이든 간에 크게 달라질 건 없어서였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전 그 사람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전 대화 상대에게 ‘저 사람, 정말 서경석 같다’는 말을 했지만 ‘연예인 이름을 사칭



하는 게 무슨 대수냐는 말을 들으면서 무시당했죠.

하지만 그 서경석이란 사람은 제 말에 반가웠던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제 친구 중에 개 그우먼 김효진 씨의 친동생이 있거든요. 그때 서경석 씨가 'MBC 테마게임'에서 김효진 씨랑 같이 출연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효진 씨 얘길 했더니 "엄청 착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그때 제 형도 서울대 인문대에 다니고 있어서 학교 얘기, 형 얘기도 했었더랬죠. 그렇게 서경석이란 분과의 대화를 거의 한 시간 정도 했었는데, 그때 타자 속도가 워낙 느려서 정작 얘길 나눈 시간은 한 3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약간은 답답했지만, 또 다른 재미가 있었던 짧은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 그분이 저한테 믿어줘서 고맙다고 뭔가를 하나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냐'고 물으니 삐삐번호를 알려 달래요? 음성메시지를 직접 넣을 거라면서요.

아, 그때 그 날아갈 듯한 기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진짜

한 5분 후쯤 제 삐삐로 음성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길게 녹음돼 있는 목소리, 그건 틀림없는 서경석 씨 육성이었지요. 전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잠 못 이루면서 밤새도록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했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그 음성메시지는 제 삐삐의 인사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섭 씨, 저 서경석입니다~"라고 시작되는 그 메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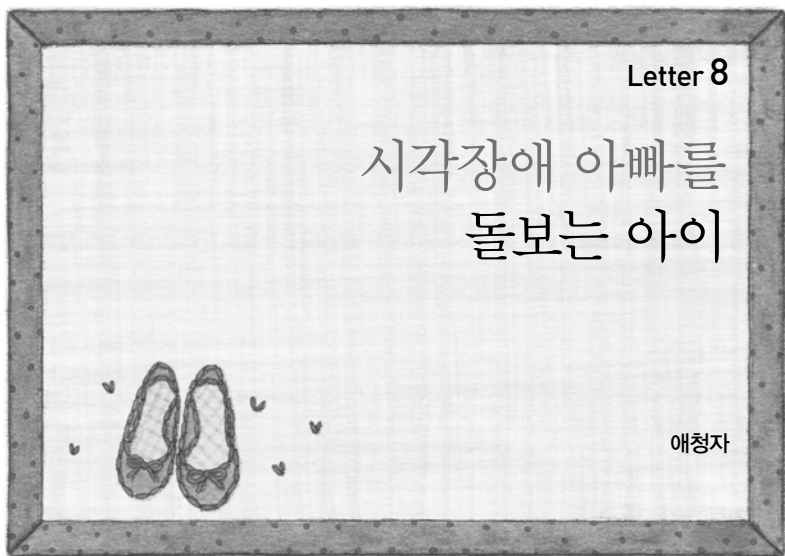
그렇게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겨줬던 서경석 씨! 혹시 저, 아직 기억하시는지요? 대구에 살던 김민섭입니다. 그때 저한테 '믿어줘서 고맙단 말'을 여러 번하고, 음성메시지도 길게 남겨주셨잖아요.

여성시대에서 반가운 서경석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20년 전 기억이 이렇게 떠오른 건, 아마도 라디오가 주는 특별함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TV에서도 수없이 많이 봐왔지만, 그때 별다른 느낌이 없었던거든요. 라디오에서 목소리만을 들으면서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 이걸 분명 라디오의 특별함 같습니다.

그때 저한테 보내주신 음성메시지도 최근에 겨우 찾았어요. 20년 만에 다시 빛을 발하게 된 서경석 씨의 음성메시지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때 메시지 보내주신 거 그리고 아직까지 좋은 기억, 추억만 들어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때 전 스무 살 대학생이었는데 이젠 세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오늘 아내가 셋째 아이를 분만하러 갑니다. 제 아이들에게 해줄 애깃거리가 생겼네요. 큰아이가 올해 7살인데, 좀 더 커서 서경석 씨가 누군지 잘 알게 될 때, 그때 이 얘기와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네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잘하시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꼭 룹런 하세요. 이제야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그럼 이만 줄입니다.



저는 집 근처에서 아동복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엔 손님이 없는 편이라 여성시대를 들으며 창밖 풍경을 자주 보곤 하는데 특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곤 합니다.

매일 오전 10시면 지팡이를 짚고 가게 앞을 지나가는 40대쯤 돼 보이는 시각장애 남성분이 있습니다. 가게 근처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있는데 아마도 거길 가시는 것 같아요.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가는 모습이 늘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그날도 오전 10시, 어김없이 그분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길가에 세워진 전봇대를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만 “악~ 안 돼!” 하며 소릴 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그분이 그만 전봇대에 머릴 박고 뒤로 엉덩방

아를 찡고 말았습니다. 한참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더듬더듬 찾기에 얼른 달려 나가 “괜찮으세요?” 했더니 그분은 미소를 지으면서 “네,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데도 말이죠.

“어머, 어떡해. 이마에서 피가 나오. 병원 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연락할 가족 없으세요? 제가 전화 걸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지팡이 좀 찾아주시겠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주워서 손에 쥐여드리고 진짜 병원에 안 가 봐도 되겠냐고 했지만 그분은 늘 있는 일이라며 괜찮다고,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다시 도서관 쪽으로 발을 옮기시더군요. 저는 행여 그분이 또 다치진 않을까 하고 뒤를 따라갔지만 다행히 별 탈 없이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그제야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 10시, 창밖을 보니 그분이 보이지 않더군요. ‘어제 다쳐서 오늘은 안 나오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잠시 후, 길모퉁이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마 상처 난 부위에 밴드를 붙이고 계셨는데 주위로 멍이 시퍼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무척이나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도 또 전봇대를 향해 걸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른 문을 열고 ‘조심하세요’ 소리치려고 했는데 “아빠, 조심해~” 하면서 웬 여자아이가 뒤에서 그분의 팔을 잡아당기는 거였습니다.

“아빠~ 나랑 같이 가자니깐 왜 거짓말하고 혼자 나왔어?”

“너 유치원 안 가고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아빠 또 다칠까봐 걱정되잖아. 빨리 내 손 잡아.”

그분의 딸이었던 겁니다. 아이는 아빠 손을 꼭 잡고, 행여 아빠가 다치지 않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길 안내를 해드리더군요. 그 날 이후, 그분은 매일같이 딸의 손을 잡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그리고 또 한참 뒤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분과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서관을 향해 가기에 “저기, 저희 가게에 들어와서 물 한잔 드시고 가세요” 했더니, 그분이 “아~ 그래도 될까요? 저는 괜찮은데 딸이 걱정돼서요” 하면서 가게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물 한잔을 대접하니, 서로 물을 먼저 마시라 그러고 또, 연신 아빠 얼굴의 땀을 닦아드리던 아이. 서로 배려하는 아빠와 딸의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군요.

“매일 도서관 가시는 것 같던데...”

“네,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매일 가시는 거였군요.”

“네, 여기는 뭘 파는 곳인가요?”

“아동복 파는 데예요.”

그때, 아이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니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와 얼룩덜룩 지저분해진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잔뜩어.

“그래요? 제 딸 옷 하나 사주고 싶은데 다음에 한 번 오겠습니다.”

“다음에 꼭 오세요. 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드릴게요.”

“덕분에 물 잘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야, 너도 인사드려야지.”

“아줌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분과 아이가 길에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 자꾸 아빠 따라다니면 어떻게? 친구들처럼 유치원에 가야지.”



“싫어! 나는 아빠 따라다니는 게 중단 말야.”

“자꾸 이렇게 아빠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보내버린다.”

“싫어! 싫어! 나는 아빠하고 사는 게 중단 말이야. 흑흑흑~.”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그분은 손을 공중으로 휘휘 내저으며 딸을 찾았고, 그러자 아이는 아빠 손을 끌어다가 자기 얼굴에 갖다 대고는 “아빠, 나 여기 있어” 하더군요.

“아빠하고 살면 네가 힘들어. 정말로 엄마 있는 데 가는 건 어때? 가면 매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옷도 입고, 좋은 집에도 살 수 있어.”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아빠랑 사는 게 행복하단 말이야. 엄마한테 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해, 으앙!”

“알았어. 약속할게.”

“아빠~ 진짜지?”

“응, 그래. 아빠하고 지수하고 평생 같이 살자. 약속!”

저는 그때 그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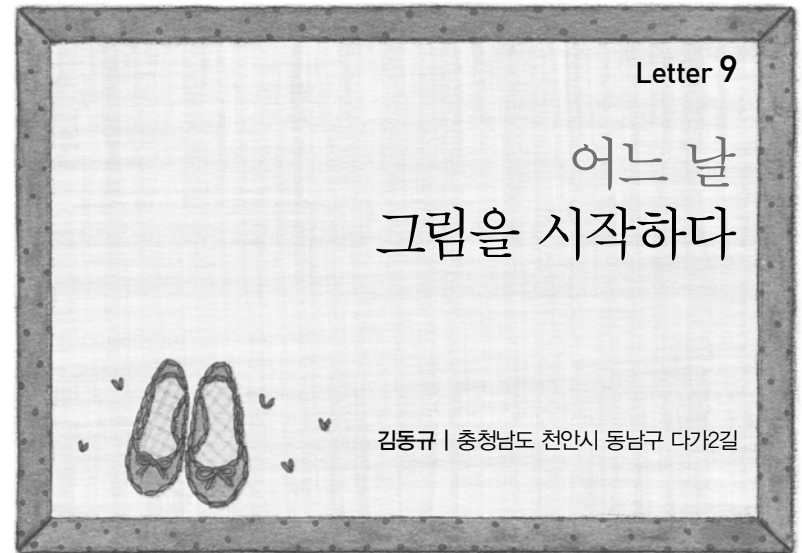
그리고 시간이 흘러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정릴 하려는데 그분
이 딸과 함께 가게로 들어오시더군요. 아이 옷을 사고 싶다면, 앞
이 안 보여서 그런데 예쁜 옷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 공주님 몇 살? 좋아하는 색깔은?” 했더니,
아이는 7살,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분홍색 원피스와
엘사 그림이 그려진 원피스를 직접 골랐습니다. 아이가 옷을 두 벌
고르자 “지수야~ 오늘은 하나만 사면 안 될까? 아빠가 다음에 다른
것도 꼭 사줄게” 하는 아빠. 그 말에 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골라
들었지만 그래도 엘사 원피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나, 저 엘사 드레스도 갖고 싶은데...’ 모기만한 소리로 말하자, 아빠
는 “미안해~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다음에 꼭 사줄게”라고 했습니
다. 아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요.

분홍색 원피스가 원래 4만 원짜리인데 3만 원만 받겠다고 했습니
다. 그랬더니 낡은 지갑에서 꾸깃꾸깃한 천 원짜리와 오천 원짜리
여러 장을 꺼내 계산하곤 “고맙습니다” 연거푸 인사하시던 그분.

전 가게에서 나가 나란히 걸어가는 부녀의 모습을 한참 지켜 봤습
니다. 아빠가 걷다가 스텝이 꼬여 넘어질 뻔할 때마다 아빠의 팔을
잡아드리던 착한 딸. “아빠가 다음에 엘사 드레스 꼭 사줄게”라고 하
니 “분홍 원피스만 있어도 좋아요” 하는 아이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만 드레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
이 모습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다음날 드레스를 예
쁘게 포장해서 선물하기로 했죠. 예쁜 옷을 받아들고 좋아할 아이를
생각하니 제 마음이 왜 그리 좋던지 옷을 포장하는 내내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분과 딸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살았
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도 어느덧 50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
라고 하니 그리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
면 그래도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힘겹게 얻은 딸아이를 잃었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던 사춘기 아들 녀석을 데리고 무작정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다시 살고 있지만, 저는 그저 늘 허허거
리며 실없이 웃는 남편으로 철없는 아버지로서만 살고 싶었습니다.

17년 동안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곳으로 와보니
나이가 많아서 동종업계로의 취업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이 무
관, 경력 무관’이라고 적혀 있는 구인 광고만 눈에 띄면 무조건 이력서
를 보냈더니 여기저기서 연락이 쏟아져 오더군요. 일이 힘들어서 그
렇지 절실한 마음을 갖고 찾아보면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교대로 돌아가는 회사에 첫 출근을 해서 보니 생산 현장엔 온통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뿐이었고, 7년 넘게 그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베트남에서 온 반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데리고 몇날 며칠 동안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더군요.

아침 7시 30분까지 출근해서 8시에 야간 근무자들과 교대를 하

고, 일찍 끝나는 날은 저녁 7시, 바쁠 땐 밤 10시까지 잔업을 하며 법정 최저 임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그렇게 3년 반이 지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뭐지? 내 인생은 도대체 이게 뭐지?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그 생각이 한 번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니 그때부터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너무 우울해서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적한 주택가 3층 건물 꼭대기에 평소엔 잘 보이지도 않던 ‘미술 교습소’라고 쓰인 작은 간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세 정거장쯤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바짝 치켜들고 그 간판에 붙어 쫓겨나 자꾸 확인하게 되더군요. ‘한때는 나도 꿈이 있던 사람이었고 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라는 생각에 한 번 빠지고 나니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업이 없던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기심 반, 기대 반, 구경삼아 한 번 찾아가 봤더니, 약 20여 평 되는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석고 테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서 4B 연필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소리가 순식간에 저를 열일곱 꿈 많던 소년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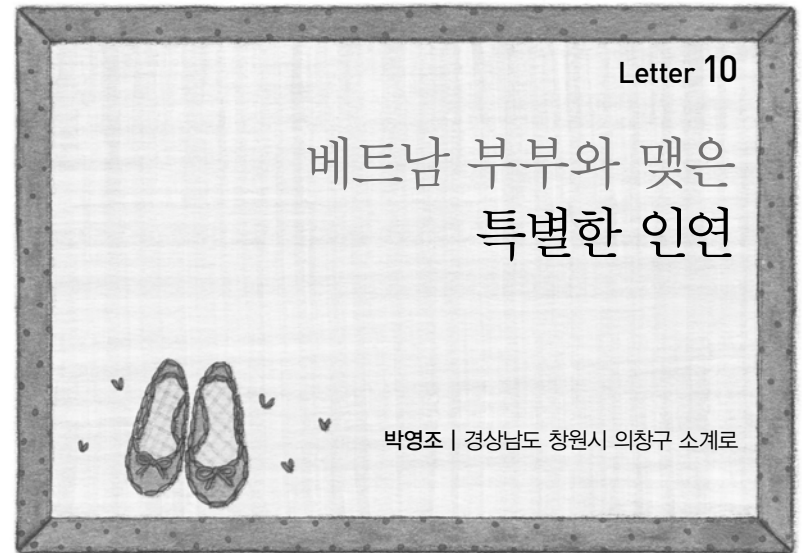
제가 그 나이였을 때 부모님께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한 번 말했다가 ‘호적 파서 당장 나가라’는 말과 함께 빗자루가 날아온 이후로 미련 없이 버린 꿈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꾸 꿈은 금방 잊을 수 있어도 가슴으로 한 번 꾸 꿈은 평생 잊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걸 그 순간 다시 깨달았습니다.

화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몇날 며칠을 망설인 끝에 한동안은 아내에게 말도 하지 못한 채 몰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신기하게도 공장 안에서 돌아가는 시끄러운 기계 소리도 음악 소리로 들렸고, 아내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그날처럼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점’과 ‘점’을 연결시키는 ‘선’ 하나도 똑바로 그을 수가 없어서 ‘원뿔’과 ‘원기둥’ 하나를 완성시키는데도 거의 한 달씩 걸렸고, ‘사과’가 있는 ‘정물화’를 저는 열심히 그렸는데 그걸 본 아이들이 “아저씨! 이거 홍시예요? 정물대에 홍시는 없는데요? 상상화 그리신 거예요?” 이렇게 놀려대는 소리를 들어가며 보낸 시간이 또 어느덧 1년.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갈 수가 없지만 같이 그림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떡볶이도 사주고, 집에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도 들어주면서 살고 있는 저를 보며 아내와 아들 녀석은 ‘도대체 언제 철이 들려고 저러는 거냐’ 혀를 꼴꼴 차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하고 있는 아픈 기억들을 이제야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한번 시들어버린 꽃은 금방 다시 피울 수는 없어도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는 꼭 다시 피어나게 되어 있다는 흔한 교훈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직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하며 자랑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와 희망의 그림이 또렷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무수히 많은 희망의 ‘점’들을 찍고 그것을 ‘선’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커다란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제 인생의 2막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펼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창원공단과 가까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근로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저도 군에 입대를 하여 나라의 부름으로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기에 그때를 회상하며 베트남 근로자들을 따듯이 대해 주었죠.

그러다가 팜티현과 동티홍장이란 베트남 부부를 알게 되어 자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20대에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들어와 자기들끼리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발소를 하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발소가 쉬는 날 동티홍장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부가 만약 베트남에 돌아가더라도 한국어와 한글을 잘 알면 관광가이드 일도 할 수 있고, 베트남 현지의 한국 회사에 취직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렇게 지내다 동티홍장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

졌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팜티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팜티현이 트럭에 받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지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가 보니 팜티현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후였고 의사선생님께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니 지금 상황으로는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티홍장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임신을 한 터라 뱃속에 아기가 어떻게 될까 싶어 집사람과 저는 동티홍장을 입원시켰습니다. 두 사람을 살리겠다고 집사람과 저는 가계 문을 달아가면서 팜티현의 보호자가 되어 날마다 병원을 드나들었고, 또 임신한 동티홍장을 데리고 산부인과도 다녀야 했습니다.

동티홍장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쌀과 반찬을 가져다주고 주변 분들과 의견을 모아 모금도 하여 병원비와 생활비에 보태도록 했습니다. 그 후 팜티현은 몇 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생 끝에 응급실을 나와 일반 병실에서 또 일 년이탄 시간을 보내고 겨우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동티홍장의 뱃속에 있던 아기도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동티홍장이 아기를 낳던 날도 집사람과 저는 산부인과 복도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고생하는 동티홍장에게 기운 내라는 뜻으로 '만약 내가 다음에 베트남 관광을 가면 너를 데리고 호치민 구경을 시켜주마라'고 약속했습니다. 동티홍장과 팜티현은 하노이 근처에 살고 있어 호치민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근로자로 들어왔으니 자기 나라 도시 이름도 다 모르더군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동티홍장과 팜티현은 사고가 난지 3년 만에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베트남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곤 했지요. 팜티현이 사고로 장애가 있다 보니 취직하기가 쉽지 않고 동티홍장 혼자서 직장에 다니니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아보였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 고맙다고 하면서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꼭 한 번 베트남에 오라고 하여 우리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가봐야 하나 어떻게 하나 고민 끝에 이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증도 풀 겸해서 우리 부부는 베트남 하노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기 전, 준비할 것도 참 많았습니다. 멀리 떠나보낸 자식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마음도 설레고 어떤 선물을 사 가야 할지 몰라서 전화로 필요한 걸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전기압력밥솥, 원터치 모기장, 부모님들 건강식품, 아이들 장난감 등을 사서 갔지요.

4시간 반 걸려 하노이공항에 도착하니 팜티현과 동티홍장 그리고 아이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꽃다발을 준비해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낳은 아들도 같이 나왔더군요. 그렇게 떠나보낸 지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두 사람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동티홍장은 한국 회사에서 경리를 맡고 있고 팜티현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동티홍장은 한국 사장님에게 말을 해 휴가를 받아놓았더군요. 저는 한국에서 약속한대로 동티홍장을 데리고 호치민 구경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팜티현도 회사에 휴가를 받아 같이 가겠다고 하여 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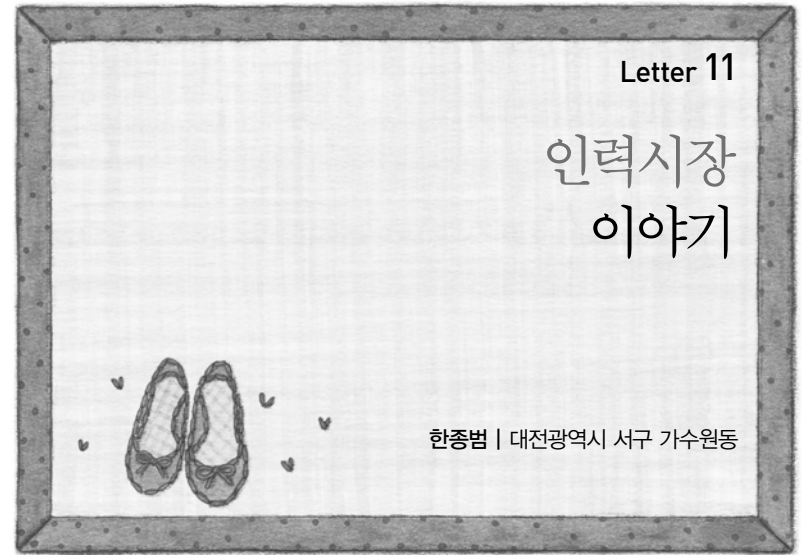
람을 데리고 하롱베이를 먼저 관광했습니다. 그렇게 하롱베이 여행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호치민으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호치민 시내를 구경시키고 다음은 끼이랑 수산시장으로 갔습니다. 강에서 배를 타고 장사를 하는 곳이라 참 아름다워 그곳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외 미토, 꺄저, 붕타우 등을 9일 동안 우리 넷은 즐겁게 여행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부모 자식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도 못 올리고, 신혼여행도 못 간 두 사람은 마치 신혼여행을 온 것 같으며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좋은 호텔을 잡아주느라 비용이 제법 지출이 되었지만 자식이라 생각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집사람과 백마부대 전적지를 둘러보면서 호치민과 근처 관광을 해서 이곳은 잘 아는 터라 두 사람을 데리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시간이 흘러갔는지 9일째 되는 날, 우리는 팜티현과 동티홍장을 호치민에서 하노이로 가는 비행기에 태워 보냈습니다. 떠나는 날 두 사람은 언제 또다시 만날 지 모르는 우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언제 또 만나겠나 싶어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내고 우리 부부는 밤 비행기로 호치민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지 벌써 8개월이 되었네요. 지금도 그때 사진을 보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를 합니다. 두 사람은 그 이후로 금슬 좋게 잘살고 있으며 두 사람이 같은 한국 회사에 다닌다고 하네요. 동티홍장에게 한글과 말을 잘 가르쳐준 게 지금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인연이란 이런 거겠지요?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섰다. 새벽달이 밝은 얼굴로 다가와 인사했다. 나는 일용직 노동자다. 목적지에 늦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지만, 인력시장에서 늦거나 지각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제 시간에 출근했다 치더라도 그날 인력시장 사장님께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일거리가 없다.

그래서 이른 아침, 인력 사무실 안에는 항상 미묘한 정적이 감돌기 마련이다. 아마도 당일 취업의 향배를 가르는 매우 긴장된 순간 탓이리라. 일을 주느냐 마느냐를 선택하고 호명하는 결정권은 전적으로 사장님 고유권한이다.

그날 운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근로자의 몸 상태다. 이를 테면

전날 과음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숙취가 이어져 누가 봐도 음주 출근을 한 상태라면 당연히 호명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몸이 아프거나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않아도 호출에서 제외되기 십상이다.

이를 판단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얼핏 봐도 외모, 복장, 언어, 행동거지에서 모든 게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작업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 꼭 필요한 초동 조치다. 이런 중요한 과정을 생략하거나 등한시해선 절대 안 된다. 자칫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그날은 기분 좋게도 운이 좋아 호명이 됐다. 그러나 우리 일행 중 2명에겐 일이 주어지지 않았다. 매일 새벽에 나오다보니 자연스레 얼굴을 익히게 된 친구들이었다. 그 중 한 명은 몸이 비대해서 평소 걷는 것도 버거워하는 친구였다. 일을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남산처럼 볼록 나온 배, 그 배에 걸쳐진 바지는 자주 흘러내렸고, 그래서 늘 바지를 올려 입기에 바쁜 친구였다. '쫓쫓, 차라리 뽕뽕바지를 입지...' 또 한 친구는 그와 반대로 회초리처럼 마른 젊은이었다. 연락하기가 그지없어 보기만 해도 안쓰러운...

이런 동료들을 두고 나만 일을 나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 못했다. 미안함과 위로의 눈길을 가득 담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이미 좌절의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오늘 자신이 일자리에 선택되지 못했음을 구실 삼아 안주도 변변찮은 선술집에서 강술로 오늘의 분노를 희석할 것이다. '술값이라도 하라고 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쥐어줄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가득 몰려왔다.

그리고 내 마음은 마치 예리한 낮에 베인 벼처럼 쓰리고 아팠다.



우중충한 하루살이 현장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의 법칙은 잘 갈린 낫처럼 새파랗게 날을 세우며 번득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고달픈 중생들의 삶의 현장이다.

오늘의 작업 현장은 '세종시'였다. 수려한 금강과 미호천을 끼고 있는 드넓은 세종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의 울림은 그 모습이 마치 우후죽순(雨後竹筍)을 연상케 한다. 오늘의 작업내용은 여기저기 너무러져 있는 자재 정리. 다른 일보다 노동강도가 세지 않아 안심이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일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안전을 위협하는 예측불허의 일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현장이건 항상 '안전제일'을 강조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날씨다. 특히 한여름의 살인적인 불볕더위와 한겨울의 강추위이다. 때문에 중노동에 더한 무더위와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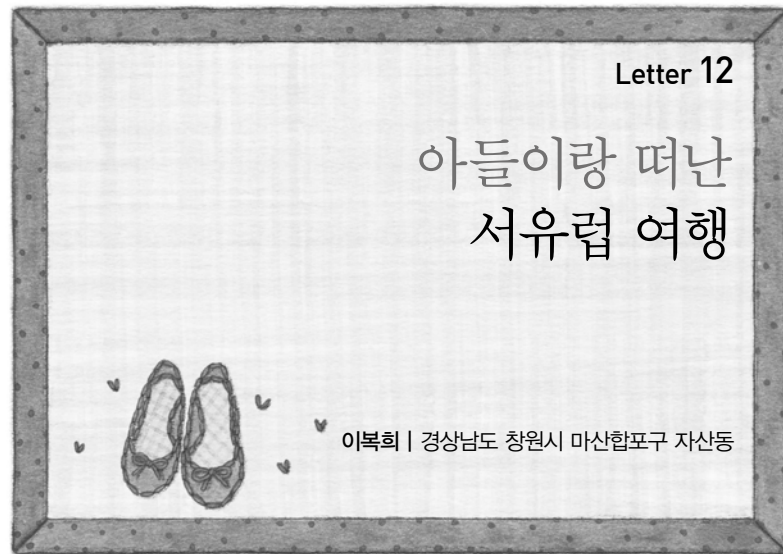
위로 일이 끝나기도 전에 심신이 녹초가 되는 건 기본이다. 여하튼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중노동은 정확히 오후 5시가 돼서야 끝이 났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순의 초로 노동자다. 이런 내게 일 거리를 제공해준 인력시장 사장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어쩔 땐 ‘난 대체 이 나일 먹도록 과연 무얼 했던 말인가’ 하는 깊은 자괴감의 늪에 빠질 때도 있다. 하지만 ‘고삭부리 아내’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하나의 사치에 불과하다고 냉큼 발을 뺀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으로 난 늦은 나이에 작심하고 글쓰기 공부를 시작했다. 새벽의 노동시장이 영원할 순 없기 때문이다. 가수 오승근은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를 부르며 사랑하는데 나이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떤 정신 나간 인력시장 사장이 허리까지 구부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준단 말인가!

좌우간 글쓰기는 현재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이다. 새삼 주경야독의 실천이 이처럼 가슴에 와 닿는 것은 그만큼 내 처지가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론사 시니어 기자’가 돼서 힘든 중노동을 안 하고 글만 써서 지금의 벌이를 벌충하는 게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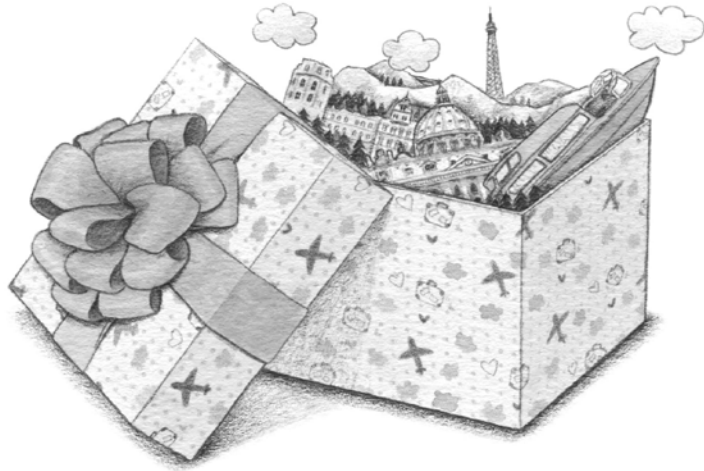
집에 도착하니 시계는 오후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침에 집을 나간 지 14시간 만이었다. 아내가 측은한 눈길로 저녁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 사이 나는 서둘러 목욕을 마쳤다. 정갈하게 목욕 재계까지 했으니, 식사 후엔 다시금 글쓰기 공부에 매진하리라. 그러다가 노동의 즐거운 후유증인 졸음이 밀려오면 주저 없이 그의 포로가 되리라. 그건 바로 또다시 건강한 아침을 맞이 위한 나름의 노후다. 숙면처럼 달콤한 보약이 세상에 또 어디 있던가?



저는 올해 서른 살 아들을 둔 56세 엄마입니다. 아이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여러 매체나 이웃을 통해 접하곤 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팔불출이 돼서 제 아들 자랑 좀 해보려 합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어질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고, 서른이 돼서도 엄마인 저를 ‘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들한테 “아들, 아들은 엄마를 신으로 생각하제?” 물으니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 이상이죠” 이릅니다. 엄마를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역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살피며 키웠습니다. 정말 틀린 행동이 아니면 그냥 봐주기, 눈감아주기, 지나치게 간섭 안하기, 이렇게요. 아이들이 어쩌다 잘못해도 엄마가 알면서도 침묵을 하니 꾸중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도리어 묻습니다. “엄마, 왜 나무라지 않아요?” 하



고요. 그럼 전 그랬죠. 니들이 이미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꾸중은 의미가 없다고요. 아이들이 어릴 땐, 예의 부분에 있어서 엄격했지만 중학생이 된 후론 '기본 바탕이 되었다' 보고 주로 뒷바라지를 정성껏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아직 미혼인 서른 살 아들이 엄마랑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있단 얘길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째인데,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장기간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힘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난 9월 6일 저는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고졸로 국내 대기업에 입사했고, 회사에 다니며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올해 입사 10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차 휴가를 받게 됐나 봅니다.

평소 몇 번 해외여행을 다녀온 아들은 결혼하기 전에 엄마와 함께 하는 여행으로 휴가를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얘길 친구들한테 했더니, 같은 입사 10년 차인 아들의 친구 두 명도 좋은 생각이라

면서 합류하게 됐네요. 그리하여 아들들 셋, 엄마들 셋이 함께 떠난 여행! 세 명의 엄마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남편과 사별한 솔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던 우리는 그동안 말만 들었던 '유럽'이란 신세계로 뜻밖의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아들들은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의 동문들로 세 명 다 올 초, 혼자 힘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한 아파트에 처음 가본 날도 참 대견하더군요. 대형냉장고, 세탁기, TV, 침대, 식탁, 소파까지 완벽하게 갖춰 놓고... 그걸 보니, 정말 내가 낳은 아들이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낸 후, 당시 고3이던 둘째딸을 대학 보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힘들어서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딸도 우여곡절 끝에 올해 독립해서 한시름 놓은 상태기도 합니다.

유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지만 의약품은 나를 챙겨 떠났습니다. 두통약, 소화제, 연고, 밴드, 감기약, 비타민... 장거리 이동을 한다가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약을 챙긴 거죠. 여행사를 통해 온 준비물 목록에 커피포트, 드라이기, 멀티탭, 멀티코드 4구가 있어서 이것도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

유럽은 선진국이라 모든 게 우리나라보다 나은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가본 유럽은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호텔이지만 좁은 샤워 부스, 드라이기와 커피포트 없는 곳이 많았고, 식수는 다 사 먹어야 했죠. 물 값은 얼마나 비싼지 500리터 한 병 기준으로 1300원에서 2700원 정도, 휴게소의 화장실도 대부분 유료여서 놀랐습니다. 1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 1300원 정도더군요.

우리의 여행지는 서유럽 다섯 개 나라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

스, 이탈리아, 프랑스를 열흘간 도는 거였습니다. 이 나라들은 강이나 시냇물이 뿌연 석회수여서 식수가 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물 맑은 우리나라의 청정계곡들이 절로 생각났습니다.

여행 첫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성을 시작으로 독일 관광버스를 타고 오스트리아로 갔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알프스산맥 그리고 독일에서 오스트리아까지 버스투어, 6시간 동안 펼쳐진 너른 들판은 주로 옥수수밭 아니면 잘 다듬어진 푸른 초원으로 아름답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알프스산맥을 낀 유럽은 주로 쪽쪽 뺀 푸른 침엽수림이 많았는데 이게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해주더군요.

다음은 스위스의 높이 3,454미터인 융프라우요흐. 이 높은 곳까지 철도가 깔려 있어서 열차로 올라가는 내내 푸른 초원 위 목조주택과 만년설을 볼 수 있었는데, 목가적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땔 수 없었습니다. 알프스산맥 아래,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스위스에서 일정을 마치고 넘어간 이탈리아. 그곳에선 시내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다는 로마의 유적지, 거대하고 웅장한 바티칸을 찾았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미, 미켈란젤로의 초인적 노력이 스며든 천장 벽화는 또 감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의 도시 베니스에서 수상택시를 타고 지중해 연안을 유람하면서 사람 손으로 안 되는 일은 없구나 하며 놀랐죠.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에서부터 이탈리아까지 빙그레 웃으며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 목적지인 프랑스에 가게 됐습니다.

파리의 에펠탑과 아름다운 세느강에서의 유람선 관광. 세느강에서 에펠탑의 황금빛 불빛을 보고, 또 다른 유람선에선 선상 레스토랑까지 즐기며 참으로 멋진 도시에서의 밤풍경을 맛봤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곳을 다니며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지만 여행기간 내내 아들과 함께 간 친구 3명이 재밌게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청년들이다’ 생각했습니다. 취업하기 참 어렵다는 요즘, 캥거루족으로 불리는 젊은이들도 많은데 이 아이들은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비교적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곤 쓸 텐 쓰고, 아낄 텐 아끼면서 결혼하기 전 엄마 도움 없이 아파트도 마련하고요. 여기에 엄마에게 해외 여행 선물까지.

파리에서 백화점엘 잠시 들렀는데 거기서 제가 아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려고 하자, 아들은 끝내 그 선물을 받지 않더군요. 이렇게 비싼 옷은 낭비고, 자기는 이런 옷을 안 입어도 맘매가 좋아서 아무 옷이나 입어도 잘 어울린다니요. 아, 물론 아들은 179cm 키에 늘씬하긴 하답니다. 또 제가 해외 간 김에 28살 딸한테 가방을 하나 선물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엄마, 현이한테 아직 사치입니다” 하면서 말리던 아들. 저는 이런 아들의 생각에 깜짝 놀랐고, 바로 이런 마음이 아들의 오늘을 가져온 거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행기간 중, 한 엄마가 고산병으로 고통스러워 할 때 제 아들도 그 곁을 함께 지켜서 참 흐뭇했던 기억도 나네요. 다행히 제가 준비해 간 아스피린과 매실엑기스를 먹고 좋아져서 우리 모두는 여행을 마치는 그날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살기 참 좋은 나라, 최적의 나라라는 깨달음도 함께 얻어 왔네요. 앞으로도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엄마들에게 유럽여행을 선물한 아들 노승일, 친구 박상우, 박경민! 너희 참 예쁘더구나. 너희들의 우정도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엄마들을 대신해서 고마움을 전한다!”



고사리 유감

서울 드봉구 방학로 박미영

지난 주 일요일,
 포차집 서울을 벗어나 은악산 산행이 있었다.
 새벽부터 내릴 비는 2나마 개인 날씨를 보여 다행
 이었지만 흐리고, 바람이 제법 많이 불었다. 할계단이
 많고, 경사가 있는 935에 정상은 큰 무지개가
 흐르고, 저마다 싸운 도시락에 과일, 떡, 커피까지..
 우수수 낙엽이 날리니, 몸이 스산해져서 우린 서둘
 러 다들 고산인 험등아 밑 쪽으로 하산했다.
 산을 거의 내려 왔을때 할머니의 파란엔 가평 자
 이 주류를 이주며, 참기름, 들기름, 고사리도 팔았다.
 시냇물 같은 국산이라며, 시너알씨 사감들의 인기
 가 좋았다. 나는 고사리 상쾌를 보고 묻지도



않고, 두개를 집어들었다. 언니도 하나 사다
 줘야지 하면서. 밑지맘 흑신나뉘어 표입조롭게
 '할머니, 이거 국산이예요?' 할머니 밝게 웃으시며
 "지짜야. 봄에 뜯어다 팔긴데...
 담갔다가 삶아서 볶아 먹으면 맛있어!"하신다.
 투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할머니는
 개시도 못했다고 하였다. 뒤 따자오던 분도 먹기만
 하니 미안하다며 자을 한봉지 사신다.
 2 마음이 따뜻하다.
 바깥도 불고 추운데 똥똥 친정엄마 생각이났다.
 2저 한푼이라도 만들 요량으로 갖이며 당근,
 고들빼기 등을 가져가 시장 한쪽에 앉아팔면
 요즘은 예전같지 않고, 모히려 잘 팔리다며
 뜯겨우신듯 통하를 하면서 목소리 톤이크셨던
 생각이 난다. 언니들이 "뭐 사요?" 묻는다.
 뽕사리 사요? "대답하기가 무섭게



“2거 왜가, 풍족한데, 유원지 이저곳도
요즘은 다 풍족한이 판 치다니가,
차자리 동네 「하나로」 같은데가 믿을 만해.”
나는 뒤통수를 한데 맞은 양 멍해졌다.
나만 어리석은가? 잘 살펴보고,
할머니도 2절게 말씀하셨는데 언마...
어제 저녁에 물에 담가 불리 고사지를 출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물는다. 이거, 새판로 보나 크기로
보나 죽산 많지? 내가 물는다. “죽산 얇은데.”
마음이 놓인다. 고사지를 삶아 들기름을 넣고,
쪄서간장 약간 2리고 양념해쪽 볶았다
다듬은 것도 없이 세지 않고 여리게 내 눈에도
입맛에도 죽산입이 뜰잡없고 맛이있다.
2리데 씹쓸한건 세간은 믿음보다 불신이
앞서 있음이 슬프다. 우리는 어느순간부터
이렇게 믿지 못하고 살게 되었는가?



[7011님]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직하고 쉬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운동하는 중 아름다운 나비가 보여 찍었네요. 주홍부전나비입니다.



[1805님] 어제 해님이 참 황홀했습니다.



[7878님] 쉬는 날마다 부업을 하며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연휴기간 내내 해놓은 양입니다. 17개에 4원하는 부업입니다. 3일 동안 173,600원이나 했어요. 괜히 부자가 된 것 같네요.



[9929님] 요즘 제주에는 가을 정취 물씬 풍기는 역새가 불만합니다. 산굼부리로 역새 구경 다녀왔어요.



[6290님] 아들이 해군교육사령부에 입영했습니다. 부모님들을 향해 근절하는 모습에 마음이 찼했습니다. 훈련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수료했으면 합니다. 필승 해군 628기 파이팅!



[2069님] 매일 미니라 듣다가 미니라디오 하나 구비했어요. 이제 데이터 신경 안 쓰고 신나게 땡땡하게 여성시대 들을 수 있어요. 토마토 수확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계획, 실천 그리고 나눔

IBK기업은행 하남공단지점 거래고객
(주)한맥전자 최경관 대표

글 | 김하늘 (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1987년에 입사한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1999년 서른아홉의 나이로 (주)한맥전자를 설립한 최경관 대표. 자본금 3억 원으로 시작한 회사는 설립 3년 만에 매출 100억 원, 설립 11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지금처럼 상품 정보가 공개되지 않던 때라, 여러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품 정보를 모아 공동구매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으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다가, 삼성 전자에서 부품을 공급·회수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박스를 납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구매해 납품하다가 점차 설비를 갖춰 자체 생산했고, 플라스틱 골판지 제조

로 특허도 냈습니다.”
습기에 약하고, 제품을 옮길 때 잘 밀리지 않아 불편했던 종이 재질의 가전제품 하부포장재를 플라스틱 골판지로 제작해 내구성과 이동성을 확보한 것이다. 2001년부터 삼성, LG, 대우가 전 세계에 납품하는 세탁기, 냉장고의 하부포장재로 (주)한맥전자의 제품이 사용됐고, 그 덕에 2002년에는 매출 100억 원을 기록할 수 있었다.



최 대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꾸준 히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사업 영역을 넓혔다. 여러 사업부 가 앞 다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 력으로 최 대표는 '계획, 실천, 나눔' 세 가치를 꼽았다.

“직원이 5명일 때부터 연간 경영계 획을 세웠고, 책자로 만들어 비치했습 니다. 그리고 매년 흑자가 나면 그중 10%를 사택 구입에 사용하기로 종업 원들과 약속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금껏 구입 한 사택은 총 10채. 직원들을 위해 계 획하고 실행했던 일인데, 이제는 부동 산 가격이 올라 15억 원이 넘는 부동 산 자산이 됐다.

“매년 12월 둘째 주가 되면 한 해를 반성하고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하 는 시간을 가집니다. 경영 계획은 직 원들이 직접 세웁니다. 수익의 20%



를 각 사업부 대표에게 주다보니, 각 회사의 경영을 맡은 대표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또 회사 신규 사업 아이 템 공모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채택된 사람에게는 이를 실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부를 만들어 대표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니, 직원들 스스로가 회사 수 익 개선 방안을 찾아 나섰다. 정치·경 제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수익이 떨어지면 경영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힘을 모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삭줍기' 운동이다. 공장 내 떨어진 볼트와 너 트 등의 부품을 주위 약 2,000만 원 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

“대표가 시키면 '우리 사장은 왜 이 런 걸 시키냐고 불평할 수 있는데, 직 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성과를 냈 기에 의미가 큼니다. 단 이 같은 결과 를 얻기 위해서는 이삭줍기를 통해 얻은 수익 정보를 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합니다. 내가 부 품을 주우면 얼마가 모이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을 직원 복지비로 사용해 '내가 노력해 서 비용을 절감한 만큼 내게 보상이 돌아온다'는 점을 알려줘야 합니다.”

최 대표는 모두가 노력해서 얻은 수익을 함께 나누는 일이 사내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 대표는 현재 12개인 (주)한맥텔 레콤 휴대전화 대리점 매장 수를 향후 10년간 10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 이다. 휴대전화와 액세서리를 판매하 는 것은 물론이고, 매장 한 칸에 누구 나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공간을 만 들기 위해서다.

“대형마켓이 유통마진의 30~40%

를 가져가, 정작 생산자는 충분한 이 율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우리 지역의 생산자가 더 많은 마 진을 남길 수 있도록 저희 매장에 물 건을 비치해 함께 판매하려 합니다. 100개 매장에서 지역 생산자의 물건 을 10개씩만 판매해도 최소 1,000개 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로써 유통비용이 줄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면 생산자는 상품 가격을 낮 출 수 있고, 소비자는 질 좋은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도 생산자, 판매자 모두가 행복 한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최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IBK 기업은행 하남공단지점 진교선 지점

장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경영 목표와 꿈을 실현하는데, IBK기업은행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최경관 대표, 진교선 지점장과의 대화가 이어질수록 이들이 함께 걸어갈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게 됐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미래라지

만, 최 대표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자신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에 걸 맞는 계획을 세워 점차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현재 예측할 수 있는 한걸음을 계획해 내닫고 또 내딛으면 언젠가는 그가 생각한 목적지에 서있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좌)한맥전자 최경관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하남공단지점 진교선 지점장(오른쪽)

■ 최경관 대표의 성공 노하우 3가지

1. 계획 없는 실행은 의미가 없다.
2. 계획을 수립했으면 바로 실천해야 한다.
3. 모두가 힘을 합해 성취한 결과는 함께 나눈다.

(주)한맥전자

대 표 최경관

주 소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로 177 (061-393-8141)

홈페이지 <http://hanmaek.biz>

내맘 같지 않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더 받을 방법은 없을까?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연말정산의 새로운 강자!

IBK 적립IRP

- 최대 115만5천원의 세액공제 가능(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주) 2015년 5월 개정 소득세법 기준, 근로소득만 있고 적립IRP 700만원 납입시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관련 세법의 재·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자유롭게 운용
- 55세 이후(5년 이상 납입) 연금수령으로 노후대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5-1387호(2015.06.09) (심의대상 : 연금보험사)

* 이 퇴직연금은 예금이자 소득공제혜택으로 운용되며, 직권유예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보호 한도는 권리에 따른 예금보험에 대한 금원상환과는 별도로 인정 '최고 50만원'이며, 50만원을 초과하는 내역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2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환하여 수반한까지 보호 합니다.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또는 www.ibk.com (2015-05-26)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관련사항은 연금기금 등을 통해 IBK기업은행의 행정정보공유에 따른 원천징수 또는 원천징수 신청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원금) : 원천징수 * (061-393-8141) IBK기업은행은 금융·보험을 받지 않습니다. 중리명칭 또한 사설이나 개인이 보유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61-393-8100, e-mail: ibkinfo@ibk.com)





DaeWang Paper 고객의 생활을 아름답게

대왕제지(주)는 1961년 설립된 제지전문 기업으로
60여 년의 전통을 지닌 민족기업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초지 드라이어를 설계, 제작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왕제지(주)의 주력 제품으로 화장지, 점보롤, 습강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늘 고객의 입장에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장 김창규

대왕제지(주) 제지와 함께한 70년



- **도통하니 부드러운 3겹데코**
3겹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훨씬 도통하고 순간 흡수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 **럭셔리한 느낌**
럭플러스(Luxplus)는 행운을 뜻하는 Luck과 격조 높은 품격을 뜻하는 Luxury의 합축어입니다.
- **무향/무인쇄**
럭플러스의 깨끗하고 순수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향과 인쇄를 넣지 않았습니다.



대왕제지(주) (우. 54004) 전북 군산시 산단동서로 22 / Tel. 063-465-8051 / Fax. 063-466-8051 / www.dwpaper.co.kr

양희은·서경석
입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대전
92.5/91.3

삼척
101.5/93.1

춘천
92.3/88.9

서울
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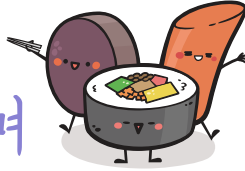
전주
101.7/94.3

대구
96.5

부산
95.9/106.5

제주
92.6(전월) / 92.1(상대방)

먼 훗날 '아직도' 예쁜 며느리를 꿈꾸며



부산 구포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숙자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봄별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별에 딸 내보낸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 속담에는 굿은일은 며느리를 시키고, 쉽고 편한 일은 딸을 시킨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만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기는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다.

그 어렵고 불편하다는 고부 사이가 꼭 그렇지만은 아닐 거라 고개를 흔드는 분이 있다. 부산 구포동에 사시는 여성시대 애청자 김숙자 씨가 그 주인공이다.

김숙자 씨는 ‘예비며느리’ 김민경 씨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어머니, 어머니” 해가며 얼굴은 생글생글, 말투는 사근사근한 민경 씨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다.

아들만 둘을 키우다 딸 같은 예비며느리를 보니 이젠 사뭇 새로운 세상이었다. 반짝이는 운동화에 몸에 짝 달라붙는 레깅스, 분홍빛 립글로스, 앙증맞은 캐릭터 양말들이 민경 씨 손에서 예비시어머니 손으로 넘어왔다.

“아마도 딸 키우는 재미가 이런 건가 싶습니다. 민경이 덕분에 제



가 더 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젊어지고 있는 김숙자 씨가 예비며느리에게 받은 선물 중 단연 첫손에 꼽는 건 따로 있었다.

올해 3월 조그마한 분식집을 낸 김숙자 씨. 처음 해보는 가게 일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민경 씨가 찾아왔다.

“어머니, 눈 좀 감아보세요.”

하라는 대로 눈을 감았다.

“네, 이제 눈 떠보세요.”

눈앞에 <오떡순 김숙자>라는 이름이 푹푹히 새겨진 명함이 있었다.

“어머니, 지금까지 명함 가져보신 적 없으시죠? 이제 떡볶이가게 사장님이시니, 손님이나 아는 분들에게 이 명함 드리세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 가져보는 명함이었다.

민경 씨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가슴이 뭉클했다. 명함 속에 박힌 이름을 보니 명함을 갖기까지의 세월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다.

강원도가 고향인 김숙자 씨가 부산에 살림보따리를 펼친 건 남편을 만나고부터다. 지인의 소개로 24살 어여쁜 나이에 선을 보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다. 성실한 남편과 현모양처인 아내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정함이 묻어나는 부부다.

남편의 퇴근시간에 맞춰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고 있으면 ‘딩동’ 소리와 함께 대문을 들어선 남편은 아내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오늘 하루도 잘 지냈어?” 살갑게 묻는다. 남편의 다정다감함을 고맙게도 아들 둘이 쏙 빼닮았다.



부지런한 김숙자 씨는 반들반들 윤이 나게 집안 살림을 하면서도 손을 잠시도 쉬지 않았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 집안에서 갖은 부업을 했다. 옷에 붙은 실밥 따기, 신발부속품 만들기, 곰 인형 눈 붙이기, 동네사람들 옷 수선 등을 하며 집안경제에 일조했다. 엄마가 부업을 하고 있으면 학교에서 돌아온 두 아들도 슬그머니 옆에 앉아 엄마를 도우며 재잘재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풀어내곤 했다.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큰아들은 장가를 가고, 작은 아들도 취직을 해 자기 앞가림을 해 이제 한숨 놓으려는 찰나 남편이 허리를 다치며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없으니 꼬박꼬박 부어오던 적금도 해약하고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때 아는 동생이 하는 분식가게에 알바가 필요하다고 해서 냉큼 달려갔다. 그곳에서 떡볶이 소스 만드는 법, 어묵 육수 끓이는 법, 튀김 맛있게 만드는 법을 6개월 정도 배웠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부산 구포동 현대아파트 후문에 자리한 곳에 분식집을 열었다. 가게 이름은 <오떡순>.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어린 손님들이 꽤 있는 편이다.

“이모, 떡볶이 500원어치 주세요.”

“슬러시 콜라 맛으로 하나 주세요.”

“감자튀김 주세요.”

하교시간이면 갑자기 밀려드는 어린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다행





히 요즘은 둘째 아들 장성일 씨가 거들어 주고 있어 한결 수월하다.

성일 씨가 가게에 있으니 예비며느리 민경 씨의 방문이 더 빈번해졌다. 퇴근 후 가게로 찾아와 설거지를 도와주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순대, 어묵, 떡볶이도 팔아주며 “어머니, 힘내세요” 늘 예쁜 짓만 하고 가는 민경 씨다.

내년 봄이면 결혼을 할 성일 씨와 민경 씨는 김숙자 씨 집 근처에 신혼집을 장만했다. 반지 하나만 나누어 끼는 허례허식 없는 알뜰 결혼식을 올릴 거라 한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기특하기만 하다.

큰 여행사에서 과장이라는 직급을 달고 있는 민경 씨는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에게 맡기겠다고 공표를 해두었다. 예비시어머니도 이미 수락한 내용이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 예비며느리 자랑을 한바탕 늘어놓으면 “아직 예비며느리니 당연히 예쁠 수밖에. 하지만 결혼식 올리고 진짜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살아보면 그렇게 예쁘지만은 않을걸” 시샘의 말도 듣는다.

하지만 김숙자 씨는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할 작정이다. 지금 이 순간 예쁘고 좋은 모습을 많이 즐기고 누릴 심산이다.

“민경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번 주말에 만들어서 성일이한테 보낼게.”

“어머니, 저 순두부가 먹고 싶어요. 닭볶음도 먹고 싶고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서로 전화도 문자도 자주하는 ‘아직은’ 예쁜 예비며느리와 먼 훗날 까지도 ‘아직도’ 예쁘게 살고 싶은 게 예비시어머니의 꿈이다.

가게 한구석에는 민경 씨가 가게 시작할 때 보낸 카드가 걸려 있다.

〈어머님,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 하나하나 새롭고 몸도 많이 힘드셨죠?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민경〉

그걸 들여다보며 더욱더 힘을 내 떡볶이를 만들고 튀김을 만드는 예비시어머니 입에서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떡볶이가 맛있게 익어 가고 있다.



코너 속 편지



일러스트 | 조신애

- 83 장용의 단필총 악몽의 전역파티
 88 나의 연애시대 그날, 나와 이별해줘서 땡큐다
 94 일요일엔 편지를 아버지의 하루를 살아보며
 97 일요일엔 편지를 이제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당신에게



장용의 단 · 필 · 총

악몽의
전역파티

애청자



2003년 스무 살의 어린 나이에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친한 동기가 없어 항상 외톨이였죠. 훈련병 생활이 끝나고 지오피로 전입을 하여 이등병이 되었는데 역시 훈련소 때 처럼 말수가 적고 얄전하다는 이유로 관심병사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사수 고참들은 말도 없는데다가 말을 시켜도 대답이 너무 짧다며 저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힘든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으니 그건 바로 한 달 후에 있을 말년병장 전역파티 소식이었습니다.

“신병들 잘 들어! 전역파티 때 장기자랑코너가 있는데 엄청 열의를 다해서 보여줘야 해. 장 일병은 고참 전역파티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내송떨다가 고참들에게 몇 달 동안 눈물 쏘 빠지게 욕지거리 들었어. 너희들 중에도 소극적으로 내송떠는 놈 있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특히 김 이병, 너 슛기 없다고 빼면 국물도 없다.”

공 일병이 저를 보며 경고하는데 너무 놀라 닭살이 올라오더군요. 그렇게 악몽 같은 전역파티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을 넘는 기분으로 ‘어차피 군대잖아! 군대 전역하면 끝인데, 그 낫 망신 좀 당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냥 신나게 노는 거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첫 전역파티 날, 제일 고참부터 말년병장 앞에서 장기자랑을 선보이는데 짬밥이 되는 고참들은 대충 ‘단결’ 하고 실실 웃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짬밥을 덜 먹은 병사들은 성대모사를 하거나 재밌는 콩트를 짜서 선보이거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전 뭘 해야 할 지 생각하다가 대중가요보다 짧은 트로트를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를 부르까? 아니야, 신병이 이런 구슬픈 노래 부르면 신나는 거 안 불렀다고 또 갈굴 거야. 그럼 김혜연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저... 저는... 트...트로트를 부르겠습니다.”

병사들은 재밌는 예능 예고편을 본 것 마냥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거뒀라, 근심을 털어 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 놓고 다함께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고참들의 호응과 웃음이 들리자 갑자기 제 다리가 움직이더니 저 절로 개다리춤이 나오더군요.

“김 이병, 다시 봐야겠는데? 군생활 뭐 없어. 그렇게 그 자세로 하면 되는 거야. 야, 너희 이등병들! 김 이병 보고 좀 배워라?”

많이 쪽팔렸지만, 고참이 그런 말을 하니 어깨가 슬쩍 올라가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트로트 마니아로 불리게 되었고 저는 나라 지키려고 군대를 온 것이 아니라 전역파티하려고 군대 온 듯했습니다.



“김 이병, 저번처럼 웃겨야 해. 한 번 웃겼는데 다음에 못 웃기면 가는 말년병장 서운하고, 지켜보는 고참들은 실망할 거야.”

저는 웃겨야 한다는 부담감에 위염이 올 지경이었습니다. 또 한번의 전역파티가 찾아왔는데 앗싸, 제가 그때 주간근무여서 전역파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또 진상짓거리 하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인데 잘됐다.’ 그렇게 고참이랑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저 멀리서 공 일병이 오는 겁니다.

“김 이병, 이 근무 내가 대신 서라는 고참들의 명이 있으시다. 지금 당장 내무실에 튀어가서 전역파티에 참석하도록...”

헉!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터덜터덜 죄수처럼 내무반에 들어서

자 저를 보자마자 고참들은 흥겨워하며 패트병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걸 마이크 삼아 80년대에나 먹힐법한 유행어를 섞어가며 노래를 불렀죠.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중간중간 영구 흥내로 “띠리리 띠띠띠”를 섞어가며 불렀지요. 다시 한 번 몸치인 몸을 막 흔들어가며 나사 하나 빠진 놈처럼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을 부르며 한바탕 놀았습니다. 고참들은 또 뒤로 넘어갔고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는데, 호응이 커질수록 저는 초라해짐을 느꼈습니다.

어느 전역파티에서는 배에다가 ‘트롯왕 김이병’이라는 글자를 적어 놓고 “찰랑찰랑 찰랑대네, 잔에 담긴 위스키처럼, 그 모습이 찰랑대네, 사랑이란 한잔 술이던가” 찰싹 찰싹 제 똥배를 때리며 찰랑거리는 살들을 보여줬지요. 고참들은 저의 모습에 뒤로 넘어갔지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고참들은 저의 트롯자락에 취하고 있었지요. 틈만 나면 내무실에서 시키는 것도 모자라 근무지, 심지어는 샤워실에서도…. 아무리 남자끼리라도 옷 훌쩍 다 벗고 노래를 부르라니요. 그래도 시키면 군대내 나오더군요.

그런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섬뜩한 사건은 추석 때의 일입니다. 중대장이 중대 장기자랑에서 1등 하는 사람에겐 4박5일 포상휴가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4소초만 나서는 병사가 없었습니다. “이 좋은 날 초치지 말고 4소초도 적극적으로 놀아보도록!” 한마디 하나까 다른 소초에서 연이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4소초는 잘놀 줄 모른다 그런 시비였죠. 그러자 거기에 말려든 우리 왕고가 “장기자랑에서 1등 하는 병사의 소초, 소원 들어주기 어떠냐?” 하자 다른 소초 왕고들은 얼씨구나 좋았습니다. 우리 왕고는 자신만만하게 “지금 니들 실수하는 거야. 우리 소

초에 정말 재미있는 병사가 있어” 하며, 저를 보더니 “김 이병, 너 가서 하던 대로만 해. 그럼 오늘 네가 1등이야. 잘하고 못하고 상관 없어. 그냥 너 평소처럼 놀면 돼. 그러면 포상휴가증 준다잖아. 얼른 나가!”

우리 소초 고참들의 등에 떠밀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중대 병사들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중대장님도 놀라서는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높은 분도 있겠다 중대 병사 전체가 다 보는 가운데서 저번처럼 진상짓거리를 하며 놀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트롯이 아닌 고음의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무 살 어린 마음에 고음을 지르면 무조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며 너무 트롯에만 집중되어 있는 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아, 아아… 크흠” 목을 잠시 풀고 온 힘을 다해서 절정 부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쉬즈 곤(shes gone).’ “레이리 오~ 레이리 으…” 삼단고음으로 시도했으나 음역대가 낮았고, 다시 흐름… “레이리 오~ 레이리 으…” 백사리가 났습니다. 다른 소초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뉘야, 제 왜 저래? 우리 집 개가 짖어도, 저거 보단 잘하겠다.” 그렇게 저는 트로트 마니아에서 ‘견소리’로 별명이 바뀌었고, 가끔 제가 지나가면 어떤 병사들은 “오~ 레이리~ 오 레이리~” 하며 저를 놀려댔습니다.

내기에서 진 우리 부대는 다른 소초 내무반 청소에 음료수까지 사고 저는 평생 먹을 욱을 배터지게 먹고 갈굼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라디오에서 〈쉬즈 곤〉이 흐를 때면, 그때 생각이 나면서 한 맺힌 못한 말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니들이 욱 맛을 알아!”

나의 연애시대

그날, 나와 이별해줘서 땡큐다

김진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그러면 이 연수는 나 혼자서만 갈게. 괜히 같이 가면 어색하기만 하고. 혼자 여행 가는 기분으로 마음정리도 좀 할 겸.”

“그럴래? 그래. 잘 다녀오고 앞으로도 잘 지내.”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연수를 가기로 했던 바로 전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교사였고, 2박 3일간의 ‘중소기업 이해 연수’를 가기로 되어 있었죠. 그 연수가 재미있었던 학교 선배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가고 싶어 신청한 거였는데 어찌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도 아니었던지라 저는 복잡한 마음을 훌훌 털고 여행처럼 다녀오자는 마음으로 짐을 꾸렸어요.

그때 제 나이 스물다섯. 연수 장소에는 경력이 20년 가까이 되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고 20대는 정말 저 혼자, 유일하게 저 혼자였답니다. 어리다고 귀여워해주시며 조별활동에서는 조장도 맡겨

주시고, 인천에서 오셨다면 한 킬킬한 성격의 연구부장님께서서는 저와 함께 다니며 저를 참 많이 챙겨주셨어요. 기업에서 하는 연수여서 그랬는지 밥도 정말 꿀맛이었고 숙소도 좋고 프로그램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수가 막바지를 향해 가던 두 번째 날 밤. 마지막 날 오전에는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수업시간에 어떻게 녹여내어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아이들이 지닌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순서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도 발표 프로젝트이다 보니 대충대충 할 수는 없었고, 저녁이 지나고도 컴퓨터실에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발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도 물론 조장이었으니 그 자리에 연구부장님과 함께 있었구요.

그런데 저는 어린 여교사였음에도 파워포인트를 전혀 할 줄 몰랐답니다. 동영상도 좀 멋있게 넣어보고 싶는데 어떻게 하는 건 줄 몰라 머리를 싸매고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와 같은 선생님들이 많았나 봅니다. 한 할아버지 선생님께서는 너무 답답하셨던 나머지 그 연수원에 돌아다니고 있던 다른 연수생을 데려오셨어요. 그때 마침 모기업 신입사원연수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자주 눈에 띄고는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보이는 대로 잡아오신 거였어요. 그 젊은 남자 분은 조근조근하고 예의바른 말투로 할아버지 선생님의 파워포인트 작업을 도와드렸고, 그 도와드리는 일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나도 도와달라는 요청들이 쇄도했죠.

바야흐로 저희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차례가 되었고 그분은 동영상을 넣는 작업을 아주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더 도와드릴

게 없는지 물으셨죠. 그런데 목소리가 정말정말 좋은 거예요. 아나운서 같기도 하고 연극배우 같기도 하고. 그때, 우리 연구부장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총각 몇 살이에요?”

“저는 스물여덟입니다.”

“여자 친구 있어요? 우리 신규선생님 나이 스물다섯인데.”

“아, 저는 없는데, 이분께서는 워낙 아름다우셔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예요. 신규선생님 남자친구 없대요. 그러면 휴대폰 잠깐 줘봐요.”

릴수릴수! 그 남자분의 휴대폰을 가져다가 제 번호를 찍으라고 하더니 통화 버튼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연구부장님의 터지는 센스라니. 푸하하하하~. 그렇게 저와 그 남자 분은 서로의 번호를 가지게 되었고, 파워포인트 작업도 탈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올라가면서 고마운 마음은 전해야겠다 싶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잘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내일 오전에 연수가 끝이 난답니다. 남은 연수 재미있게 잘 받으시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답문이 왔습니다.

〈지금 저희도 프로젝트 조별 과제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잠깐이라도 뵙고 음료수라도 한 잔 했으면 좋겠네요.〉

아~ 저는 그래서 기다렸답니다. 그러다가 11시쯤, 늦은 시간이 되어 문자가 다시 왔어요.



〈조별 과제가 이제야 끝이 났어요. 잠깐 뵙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실례라면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여자라면 한 번은 거절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좋아서 가슴이 막 쿵쿵 뛰었지만 저는 바로 답문을 보냈습니다. 저, 연애 좀 해본 여자거든요. 쿨하게! 〈그러면 거절하겠습니다〉 단칼에! 그랬더니 떠올.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 죄송했습니다. 연수 잘 받고 돌아가세요^^〉

이건 뭘니까. 그래도 다시 연락이 오겠지? 안 오겠어?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나 싶어 웃은 입고 있던 정장 그대로, 마스크라도 볼터치도 하이라이트도 안 지우고 의자에 앉아 책을 보며 기다렸어요. 다시 연락이 오겠지 하고,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30분 정도가 지났나? 아오,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이 연수원에서 나가면 어쨌든 다시 못 만나는 거잖아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아 굴욕….

〈혹시… 주무시나요?〉

그랬더니 바로 총알같이 문자가 오더군요.

〈ㅋㅋㅋ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다시 문자 드려 보려고 했는데, 지금 잠깐 중앙 로비로 나오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입고 있는 정장 그대로 지우지 않은 화장 그대로 로비로 똑딱똑딱 걸어갔습니다. 저 책 좀 읽는 여자라서, 읽고 있던 시사 잡지도 그대로 들고, 아… 그런데 더 큰 굴욕은 바로 여기였어요. 그 남자는 아까랑은 완전 다르게 다 씻고, 머릿도 감고, 반바지에 여름 반팔 티 한 장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고 설렁설렁 걸어 나온 거였어요. 완전 컨셉 티 팍팍 나게 앉아 있던 저랑은 정말 너무나 무달랐던 거죠. 어흥~. 정말 발끝까지 흥조가 생기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래도 다행히 저를 비웃어 주지 않고, 그 남자 분은 아까의 이미지 그대로 조근조근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네주셨죠. 그 자리에 앉아서 한 4시간을 이야기했나 봐요. 시간은 새벽 4시를 향해가고 있었고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지금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 걸 보면 그 시간이 꿈같았던 이유 때문일 겁니다. 지금 기억나는 거라곤, 그 남자의 등 뒤로 보이던 창밖 밤 숲의 풍경뿐이에요.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그 남자 분이 했던 이야기만 기억에 남아요.

“진영 씨는 제가 질문을 하면 꼭 제가 머릿속으로 늘 상상만 하던 듣고 싶었던 답을 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이럴 수가 있죠? 저 진영 씨에게 호감이 생겼는데, 혹시 우리 밖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땡큐! 땡큐! 땡큐지!!’ (이건 마음속으로만 외친 말입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사회 초년생이었던지라 모아둔 급전이 없어서 오직 그놈의 돈을 모으기 위해 결혼은 3년 후 제가 스물여덟이 되던 무렵 할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위기가 없었냐고요?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스토리가 아깝더라고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만났다 하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소개팅했다, 선봤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운명 같은 만남의 이야기가 우리를 다시 이어준 끈이 되었다면 좀 오버일까요? 우리는 그 후로 5년을 재미있게 살고 있고요. 작년에 낳은 아들은 곧 15개월이 됩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 둘을 연결시켜준 가장 크게 고마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인천에서 근무하던 연구부장 선생님입니다. 결혼날짜를 잡은 후에 연락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두 사람 어찌 되었나 궁금했는데 이런 소식 알려줘서 정말정말 고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하필 연수 가기 바로 전날 저와 이별해준 전 남자친구죠. 그 혼남의 오빠도 지금은 예쁘고 능력 있는 아내 만나 자녀도 낳고 잘살고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 윈윈한 거죠? 오빠, 지금 와서야 말하는 건데 그날 나와 이별해줘서 땡큐다!

일요일엔 편지를

아버지의 하루를 살아보며

김선영 | 경기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안로



아버지께.

아빠, 이십여 년 만에 당신께 편지를 올려요.

초등학교 시절, 어버이날에만 의무적으로 썼던 편지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구지 시간 내어 쓰지 않아도 될 편지로 변해버렸지만, 오늘 저의 속마음을 편지로 전하는 것이 더 진실되게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빠가 늘 애청하시는 여성시대를 두드려 봐요.

요즘 아빠와 제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엄마가 발을 다치셔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으니 아빠의 식사 챙기기는 제 몫이 되었습시다. 회사 휴가 내고 집으로 가면서 '어색하진 않을까' 잠시 걱정됐어요. 대학 진학 후, 회사 다니면서 명절에 집에 와도 길어야 이삼일 머물렀으니 그런 생각도 들만 했지요. 솔직히 항상 바쁘신 부모님이 싫었어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집에 오면 놀고 싶고 쉬고 싶은데 더 힘들게 일하다 가야 하고, 매일 종종거리며 일하시는 부



모님 뵈는 것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내려가면 올라오기 바빴지요.

그런데 막상 같이 지내며 아빠의 일을 돕다 보니 얼마나 당신이 부지런하고, 성실하시며,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신지 알게 되었어요. 해가 아깝다며 물 한 모금 마시고 새벽 다섯 시에 발에 나가서 9시가 돼서야 "선영아, 너무 배고프다" 하며 들어오신 아버지께 전 몇 번 늦잠 자는 모습을 보여 드렸지요. 밤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밴데다 아침은 거의 굶는 제가 그 시간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얼마나 배가 고프실지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 밖에 없는 모기장에 당신과 나란히 누워 불편한 잠자리에 뒤척여릴 때 당신의 끄끙 앓는 소리에 전 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끄응~” “어~휴” 하며 뺏어내는 신음에 아빠의 진실된 하루가 묻어 있는데 도시에서의 나의 하루는 어땠던가요? 사람들과 어울려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남 탓만하며 불만이 가득했는데 당신은 당신의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지고 계시더군요.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저는 부모님이 창피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소개를 받아 나간 자리에서 상대가 “부모님은 뭐하세요? 어떤 집안이에요?” 물으면 당당히 대답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남들이 기피하는 가축 농장을 하시고 친인척들 또한 그저 자기 자리에서 아빠처럼 살아가는 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이제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압니다. 당신과 같이 일어나 일하고, 밥 먹고, 가축들의 밥을 챙겨주고, 똥 치우고, 막사 물청소에 다시 집안일. 당신의 삶속에 녹아들어다니 당신들이 살아 내신 삶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제 젊음을 무의미하게 소비하는 것보다 좀 더 생산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온몸으로 번 돈으로 저와 언니와 오빠를 키우셨는데 전 막내라고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니던 대학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재수하고, 부모님 돈으로 어학연수 다녀오고, 미술 한다고 성악 한다고 하면서 과외비도 꽤 썼어요. 이젠 엄마와 아빠를 위해 제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결혼한 언니와 오빠 대신 이렇게 아버지와 온전히 보름간 지내는 게 전부네요. 이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빠, 지금처럼 너무 고되게 일하셔서 건강 해치지 말아주세요. 아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실 나이세요. 그리고 저도 철든 막내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엔 편지를

이제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당신에게



황상순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이제는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당신에게.

15년의 결혼생활 동안 난 당신을 단 한번도 미워한 적이 없고 정말 사랑했는데, 이제는 남이 되어버리고 나니 당신에게 못해준 일들만 생각이 나네. 부부는 무촌이라고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아. 늘 당신이 조심스러웠거든. 우리 둘이 아이 셋을 터울도 없이 쌍둥이처럼 힘들게 키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 함께 살면서 좋은 일과 슬픈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후회가 많이 들어.

당신과 나, 이제는 남이 되어버렸지만 세 아이의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크나큰 상처만 주고, 당신 뒤돌아서서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걸 느꼈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살아야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



렸을 적에 육남매의 둘째로 자라 부모의 나쁜 모습만 보면서 “나는 정말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했었어. 좋은 남자 만나 아이 낳고 잘살아야지 하고 다짐하면서 스무 살에 처음 만나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게 해준 당신이 너무 좋았고 10년이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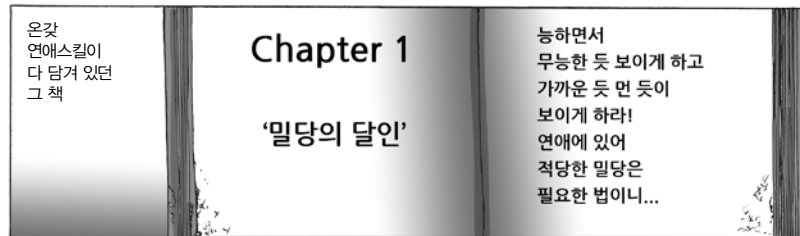
다 내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고 당신에게 잘해주지 못해 일어난 일들이니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겠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 상황에서 또 다시 부딪힌 부모님의 문제는 나를 더욱 힘들게 해.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이 당신 집을 오고 갈 때마다 그리고 당신만 혼자 돌아설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지, 이별한 사람들 마음이 다 이렇겠지? 며칠 전 내 생일에 아이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딘가 허전하더라.

그리고 큰아이가 사춘기라 많이 힘들 거란 생각을 했어. 매사 불만과 불평뿐이고 엄마인 나도 큰애를 받아주기가 힘든데 당신은 아이를 바라보는 일이 더 힘들 거라 생각해. 이렇게 되고나니 과거의 일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을까, 다른 부부만큼 우린 왜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 나 스스로에게 불만이 일어.

우리 다음 생애에는 잉꼬부부로 태어나 지금보다 더욱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빌고 또 빌자. 비록 당신과 나는 남이지만 아이들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 마음의 상처가 언제 아물지 몰라도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그동안의 힘들었던 일 훌훌 털어버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웃으며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자꾸 당신의 뒷모습을 그리워하며 당신이 내게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 힘이 들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볼게. 이제는 내 남편이 아닌 남이 돼버린 당신을 떠올리며 이런 긴 글을 쓰게 됐네. 나의 영원한 사랑아! 이제 그만 안녕. 당신의 행복을 빌게.



네...
그는 곰이 아니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온갖 연애스킬을 책으로 섭렵한
여우.
남자 여우였더라고요.





아이들의 TV시청시간

글 |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트위터 아이디 @suhcs)
일러스트 | 조신애

아이들의 TV시청시간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집에서 TV를 없애고 거실을 서재로 꾸미는 경우도 있지만 여가시간을 보내는 데는 TV만큼 편한 것이 또 없기에 그런 결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하루 종일 지칠 정도로 움직이고 나면 소파나 침대에 기대서 TV를 보는 것 외에 다른 낙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부모에게 TV는 큰 위안이 되지만 아이가 TV에 눈을 떼지 못하고 들여다보는 것을 보면 마음이 영 불편해집니다. 아이가 TV에서 멀어질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죠.

특히 맞벌이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일찍부터 TV를 즐겨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가 어렵고, 부모도 바쁘다보니 집안일을 할 시간을 내기 위해 아이에게 TV를 틀어주게 됩니다. 아이들은 놀이가 필요한데, 바깥놀이를 일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요즘의 환경에서 TV나 게임만큼 간편한 놀이가 없습니다.

물론 TV보다는 부모나 친구와 함께하는 놀이가 더 낫습니다. 특히 아이가 만 3살 미만이라면 미디어 접근은 제한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다고 좋은 것으로만 채우며 아이를 키우기란 어렵습니다. 부모가 더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지나친 부모의 노력은 부모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지친 부모는 아이에게 제대로 반응해줄 수 없습니다. 영혼 없는 양육을 하게 되죠. 그것보다는 TV를 좀 보더라도 부모가 아이에게 반응할 때 제대로 반응해주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아이가 TV를 즐겨보지만 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책도 잘 읽고, 친구들과도 잘 놀고, 자기 할 일도 곧잘 해내는 아이라면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아이들은 특정한 자극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자극을 필요한 만큼 이용하는 아이들입니다. 조절력이 좋은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에게는 부모가 불필요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아이가 TV에 지나치게 빠져있고 그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부모들을 만나면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TV에 대한 기준을 정하십시오. 아예 안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고, 시간을 정해서 보여줘도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주 1회 주말에만 부모와 함께 한 가지 프로그램을 보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 프로그램은 한 회에 20~30분이니 두 회를 보면 되죠. 이때 아이에게만 TV를 틀어주지 말고 부모가 함께 보며, 함께 즐기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TV를

보면 아이는 TV 프로그램을 부모와의 대화의 소재로 삼게 되어 TV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간만 보여줄 것이라면 TV에는 아예 TV보를 켜서 차단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도 아이가 자기 전에는 TV를 틀지 않아서 아이가 TV 생각이 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물론 이런 강력한 차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낮에 아이를 돌보는 분이 할머니라면 아무래도 TV를 자주 틀게 되죠. 부모가 TV를 좋아하시거나 TV 문화에 호의적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매일 TV를 틀어줄 수 있지만, 아이가 아무 시간이나 TV를 보게 하지 말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하세요. TV 스케줄표를 구해서 부모가 먼저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정하는 것도 좋고, 아이가 프로그램 이름을 잘 알고 있으면 보여줘도 괜찮은 프로그램인지 부모가 검토한 다음 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프로그램만 봐야지 아무 때나 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TV를 보는 원칙은 미리 정한 프로그램만 보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틀어서 리모컨으로 이리저리 트는 것은 못하게 해야 지나치게 TV에 집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IPTV가 보편적이어서 일정한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TV 프로그램을 정하고, TV를 시청하는 시간을 정한 후 그 시간에만 TV를 틀어야지 다른 시간에 아이 마음대로 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1시간 또는 2~3시간 본다고 정하면 아이는 되도록 길게 보려고 하고 부모와 소소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길수록 아이는 TV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을 없애려면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유익한 프로그램이니 영어 공부니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유아의 경우 모든 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방학이라고 더 보고, 주말이라고 양껏 보고, 엄마에게 조르면 조금은 더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는 계속 최대한 TV를 보기를 꿈꾸게 됩니다. 정해진 프로그램 이상은 절대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이제부터라도 부모가 원칙을 정하고 잘 지켜 가십시오.

유아들이 TV를 많이 보는 집의 경우 집에 장난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는 놀거리가 없으면 힘들어하고 부모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갖고 놀면서 스스로의 상상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난감이 있어야 아이가 TV 없이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집을 지저분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7살이면 충분히 컸으니 장난감을 치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감은 초등 고학년까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TV는 아이가 직접 구체적인 사물을 움직이지 않고, 집안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아도 아이가 놀 수 있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만큼 한계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죠. 어쨌든 TV가 놀이도구의 역할을 하기에 TV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대안 놀이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의 TV시청시간을 줄이기를 원한다면 아이의 장난감이 놀이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해 보십시오. 만약 충분치 않다면 보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TV에 장시간 노출되어 온 아이라면 강력한 자극을 필요로 하기에 TV 시청을 줄이는 초반에는 장난감이 좀 더 필요하고, 함께 놀이를 해주는 부모나 다른 어른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무리 없이 TV 의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의 TV 시청을 잊어버리는데 드는 시간은 한 달 정도입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노력해서 아이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래의 운명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2014년 2월에 어떤 곡보다 먼저 녹음을 끝낸 곡이 있었다. ‘슬픔 이젠 안녕’ <2014, 양희은>이란 CD에는 12곡의 새 노래가 실려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요즘, 젊은이들 방식인 디지털싱글로 나는 ‘뜻밖의 만남’ 시리즈도 계속하고 있다. 음악 사이트에 들어가 ‘양희은 뜻밖’에 만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검색하면 알 수 있다. 한 곡을 다운받는데 660원이 들고 한 번 다운 받으면 두근두근 수백 번도 들을 수 있다. 해 바뀌고 2015년 5월 ‘뜻밖’에 만남’ 네 번째로 가정의 달에 맞추어 ‘엄마가 딸에게’를 발표했고 같은 제목의 소극장콘서트도 진행됐다. 그리고 이번 11월 다섯 번째 뜻밖의 만남, ‘슬픔 이젠 안녕’이 발표될 것이다.

나는 요즘 이 노래의 운명이 궁금하다. 44년을 노래하다 보니 노래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상하게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죽을 줄 알았던 다 사그라진 불씨가 되살아나서 몇 년 후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선택돼서 당시 유명하다는 몇 개의 드라마에 계속 쓰인 경우도 있다. 그런 걸 보면 사람마다 생명줄이 다 다르듯이 노래도 타고난 운명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 노래를 지은이나 처음 부른 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팔자대로 살아남으니 말이다.

맨 처음 ‘슬픔 이젠 안녕’은 상처와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랑을 못하고 번번이 놓치다가 세월 조금 흐른 뒤에 결연히 용기 내어

사랑하겠다는 내용이다. ‘슬픔 이젠 안녕, 견디기 힘이 드니까... 쓸쓸도 이젠 안녕, 지쳤어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내 주변에 30, 40대 음악 하는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가사를 지어보라 해서 나는 처음 그 곡을 듣고 가졌던 느낌을 죄 털어내고, 근 반년을 뒹굴거리며 새로운 느낌으로 바꾸느라 정말 아무 진도도 안 나가면서 마음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씩 실마리를 찾아 헤매고 다녔다.

멍청하니 TV도 많이 찾아 봤다. 이것저것 잘 나간다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며, 내가 즐기는 여행과 요리 다큐 위주로 챙겨보며, 갖은 애를 썼지만 괴롭기만 했지 일로 보면 진전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같은 멜로디에다 ‘눈물무지개’라는 새 가사를 입힌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괜찮다. 걱정을 말아라, 당당히 견뎌내면 알게 될 거야. 굶은비 그친 뒤에 무지개. 네 가슴속엔 눈물 무지개’ 그냥 견디는지, 아님 의지를 갖고 견뎌내느냐를 한참 생각했는데 그래도 당당히 견뎌내는 걸로 결정을 지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두 버전으로 두 가지 가사를 차례로 불러, 어떤 노랫말이 더 가슴에 와 닿느냐고 여러 사람에게 물었다. 그 결과 75% 정도가 ‘슬픔 이젠 안녕’을 뽑았는데 거의가 20, 30, 40대였고 우리 나이 또래는 ‘눈물무지개’가 좋다는 얘기였다. 어쩔 꺼냐? 으째야 쓰까잉?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을 때 나는 많은 이들이 좋다고 한 ‘슬픔 이젠 안녕’으로 주사위를 던졌다. 정말 이 노래의 운명이 궁금하다.

내 손을 떠났다. 강 건너 갔다. 여러분 쪽으로 넘어갔다. 시간과 정성과 마음이 뒤죽박죽 들어가서, 이 노래가 쉽게 사라져버리면 억울할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고 지 타고난 팔자대로 이 노래도 흘러갈 것이다.

19년 만에 도착한 답장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민섭님.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믿어주셔서 감사드려요.”

1996년 여름,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내가 김민섭이라는 채팅 친구에게 남긴 삐삐 음성메시지이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가 여성시대 앞으로 19년 만에 답장을 보내왔다. 양희은 누님의 음성으로 소개된 그의 편지를 듣고 있다 보니 스멀스멀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내가 당시에 남긴 음성메시지를 듣는 순간 결국 머리끝이 쭈뼛 서고야 말았다.

정말 깜짝 놀랐다. 19년 전 내 목소리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도, 여성시대를 진행하게 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곳으로 연락을 취한 것도, 모두 놀라운 일이었다.

그렇다. 19년 전, 휴대폰은 물론이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 PC 통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타자도 제대로 배우기 전에 ‘채팅’에 도전했었다. 독수리 타법이다 보니 빠르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채팅방 흐름에 적응할 수 없어 몇 번이고 포기하려 했지만, 신세대 코미디언으로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쉽게 굽히고 싶지 않아 가까스로 버텼었다. 처음엔 직업을 밝히지 않고 해보려 했지만, 같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타자 속도가 느린 나를 하도 따돌리려 하기에, 급기야 ‘밀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나의 신분을 밝혔고,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당신이 서경석이면 나는 장동건이다’였다. 본전도 못 찾은 채 처참히 방에서 튕겨 나오기를 반복하고 있던 어느

날, 김민섭 씨를 만나게 된 것이다.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나를 처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나의 말 또한 믿어주었다. 그리하여 그와의 긴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타자 속도가 느린 나를 배려해 기다려준 덕에 우린 한 시간 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둘은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조언을 주고받았던 것 같다. 채팅이 끝난 후, 나는 그에게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었고, 직접 삐삐 음성을 남김으로써 감사함을 전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기억에서도 점점 잊혀져가고 있었는데, 19년 만에 그가 당시 내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과 함께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도 한동안 잊고 있었고, TV에서 내 모습을 볼 때는 별 생각이 나지 않다가 최근 여성시대에서 흘러나오는 내 목소리를 듣다가, 당시의 상황을 편지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디오에는 다른 매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함이 분명 있다. 영상 없이 목소리만으로 청취자의 사연을 전하지만, 진심이 담긴 소리는 그 어떤 아름다운 영상보다 더 큰 감동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여성시대 DJ로서의 새로운 걸음을 내디딘 내게 배달된 19년 전 채팅 친구의 답장은 앞으로 어떻게 방송에 임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었다. 19년 전 내가 그에게 남긴 음성메시지는 정말 진심어린 것이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진심이 주는 감동은 오래도록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게 마련인 법. 진심으로 청취자의 사연에 귀 기울이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하겠다는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오래도록 여성시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으리라.

이번에 세째 아이를 얻게 되었다는 김민섭 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 강의 《시를 읽은 그대에게》

글 |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가을이 익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빨리 익고 빨리 저버리는 가을이지만, 그 가을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 그냥 오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쉽게 받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에 더 힘겨운 계절이 가을인가 봅니다. 그래서 가을엔 책을 봅니다. 책으로 길을 낼 수 없고, 책속에 내버게이션이 있을 리 없지만, 늘 책 읽는 시간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과 시간이 채곡채곡 쌓여 낙엽 쌓인 숲속의 오솔길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숲속 길과 피톤치드 삼림욕을 만들어주는 책이 있습니다. 정재찬 한양대 교수의 《시를 읽은 그대에게》, 부제는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 강의입니다. 대학입사와 국어문제를 풀기 위해 시를 외었던 학생

들에게 시에 담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마음을 알려주는 강의가 책으로 엮어집니다.

저자는 책 머리말에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캡틴 캡틴 오마이 캡틴 (captain, captain, oh my captain)의 주인공 키팅 선생님을 이야기합니다.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든 고귀한 일이고 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책과 영화는 판타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처럼 빠르고 속도감 있는 공간에서는 늘 내가 없고 방향이 모호합니다. 문득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나만 버려진 게 아닌가 하는 두려운 환

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시와 아름다움과 낭만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대학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며 살아온 젊은이들이 시를 읽고, 시를 사랑하는 법을 아예 배워보지도 못한 채, 시를 읽고 즐길 권리마저 빼앗긴 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요와 가곡, 그림과 사진, 영화와 광고 등을 시와 버무려 일종의 퓨전음식으로 소개하는 강의가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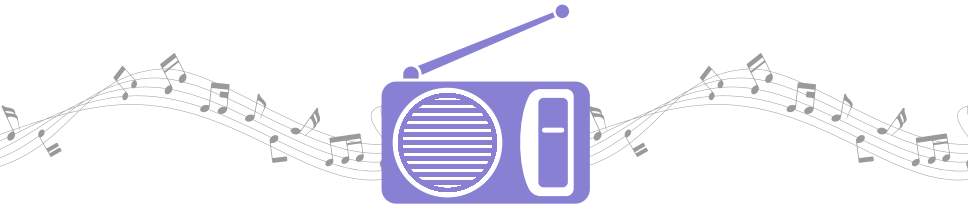
예전 술에 취하신 아버님이 자주 부르시던 가수 박일남의 <갈대의 순정>으로부터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의 유명한 아리아 <여자의 마음>을 거쳐, 영화 <봄날은 간다>에 등장하는 상우의 대사,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까지 저자는 흔들리는 갈대의 마음을 시어로 설명하기 위해 대중문화의 다양한 테마파크를 거침없이 항해합니다. 그리고는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노래-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익숙한 시를 독자들의 가슴에 새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

가 /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이 시에서 먼저 이별을 고하는 여인이 아니라 청년이라고 외칩니다. 사랑은 여전히지만 서로를 위해 헤어질 만큼 사랑한다는 청년은 갈대의 바람을 혼자 삭이며 모른 척까지 하는 낭만을 버립니다. 떠난 건 청년이었고 떠나보내야 하는 건 여인이었지만, 아차피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는 그 마음속의 가난과 운명을 본다 겁니다. 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확인시킨다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가난한 사랑노래>는 그 성찰과 체험으로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글 속에 우리의 삶이 쉬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한 휴식을 시와 함께합니다. 시를 읽은 그대에게 잠깐 쉬어가라 합니다.

정재찬 지음 | 휴머니스트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여성시대
양희은 · 서경석입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마산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경월악) / 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기업은행과 함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누구나 쉽게 금전을 기부(신탁)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문제 해소 등의 공익사업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공익신탁 상품

세제혜택

- 개인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단,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 손금산입
- 이 금융상품은 납입원금 및 해당 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운용수익까지 기부하는 상품으로서 원금 및 운용수익 모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서 세제혜택 또는 상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5-2386호 (2015.10.2) www.ibk.co.kr 2016.03.31

· 이 금융상품은 예금지보유량에 따라 예금보유금리가 변동하지 않습니다. · 개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개업영업점 또는 BK고객센터(☎166-25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거래와 관련하여 이자가 있을 때에는 BK기업은행의 분장처리규에 해감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민말이 ☎1302, BK기업은행 ☎080-800-0100, BK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 받지 않습니다. 콜리경영 위변사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00, e-mail: betho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